

결혼이주여성 노동경험 분석

: 노동의 경합 양상을 중심으로

일시: 2014년 12월 29일 14:00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결혼이주여성 노동경험 분석

: 노동의 경합 양상을 중심으로

펴낸이_ 한국염

엮은이_ 허오영숙

펴낸날_ 2014. 12.

펴낸곳_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110-8633 서울시 종로구 종로65길 16번 SSPM빌딩 4층 (충인동, 178-68)

전화. 02_3672_8988, 7559 누리집. www.wmigrant.org

전송. 02_3672_8990 전자우편. wmigrant@naver.com

꾸미고 찍음_윤기희 (02.761.8322~4)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14.



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이 책의 독창적인 내용을 허가 없이 마음대로 전재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결혼이주여성 노동실태

사회: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조사 결과 발표	위선주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박사과정)	7
토론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87
	박진경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91
	최재경 (중계사회복지관 결혼이민자고용센터 직업상담사)	97
	원옥금 (결혼이주여성·베트남 공동체 대표)	103

전체 토론

발표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결혼이주여성 노동실태 연구기획단

- _ 김진희
- _ 위선주
- _ 이해응
- _ 허오영숙
- _ 혜영(뽕)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결혼이주여성 노동실태조사는 노동자로서의 결혼이주여성에 초점을 두었다. 결혼이주여성은 이주를 통해 개별 가족에 편입된다. 이들은 주로 노동자성은 탈각된 채 '외국인 며느리'의 이미지로 굳어져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결혼이주여성 지원기관의 프로그램이 평일 낮 시간에 배치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나는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어 기초 수준을 넘어서기가 무섭게 취업을 하였다. 그리고 취업 현장이 녹록치 않았던지 다시 한국어 교실 수강생으로 되돌아와 한국어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 취업을 했다고 나오지 않기를 반복했다. 이러한 모습은 노동시장을 비롯하여 이주여성을 둘러싼 삶의 조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의 실제적 삶의 모습을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에서 나타나는 상업화된 국제결혼 현상은 '개발국 남성 + 저개발국 여성'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글로벌 자본주의 질서와 젠더화된 이주의 맥락을 충실히 따른다. Piper and Roces(2003)가 여성은 결혼을 통해 노동을 하기도 하고 노동을 통해 결혼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성의 이주에서 결혼과 노동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혼합되어 있다고 논의했듯이, 한국사회의 결혼이주는 결혼의 맥락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결혼을 목적으로 이주한 여성이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거나 노동을 목적으로 온 이주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주여성의 생애 과정에서 노동과 결혼은 서로 얽혀 있으나 한국의 다문화 정책에서 이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 한국의 재생산 위기 속에 지원이 집중된 다문화 정책은 결혼이주여성을 재생산 영역의 일차적 담지자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한편 결혼이주 현상에 내재한 딜레마 가운데 하나는 여성은 빈곤에서 벗어나 자신과 본국 가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보다 잘 사는 나라로의 결혼이주를 선택하지만,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남성은 대부분 유입국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하층에 해당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여성의 결혼이주는 국가적 위계상으로는 상향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또 다른 하층 계급으로 편입되는 하향혼인 경우가 많다(Constable, 2005). 그러다 보니 여성은 자국에서의 경제적 곤궁을 피하기 위해 결혼이주를 선택했지만 목적국에서 경제적 충족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한국의 경우 2005년 실태조사 결과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구의 절대 다수인 52.5%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설동훈 외, 2005). 2009년, 2012년 실태조사에서는 월 평균 가구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각각 59.7%, 41.9%에 달했다(해당년도 전체 월 평균 가구소득은 2009년 332만 2천원, 2012년 408만 원)(김승권 외, 2009; 여성가족부, 2013).

한국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임금노동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유입이 가시화되던 2000년대 초반부터 주로 이들의 인권 문제와 적응 문제에 무게를 뒀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은 결혼으로 이주한 여성으로서 한국의 가족에 편입되는 존재로만 부각되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주요 참여자로 인식되지 않았다. 반면 이주여성은 이미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었다. 2005년 정부 용역조사(설동훈 외, 2005)에서 조사대상 결혼이주여성의 60%가 취업을 하고 있었다. 2009년 조사에서 조사대상 결혼이주여성의 37%가 취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2년 조사에서는 53%가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3). 국내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해서는 주로 정부 정책과 연결되어 실태조사 차원으로 연구되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양인숙·민무숙, 2010),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방안 연구』(김영혜·손기영·박상희, 2009),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능력개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연구』(장명선·이옥경, 20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방안: 언어·문화 자원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고혜원·김상호, 2010) 등이 그것이다. 이런 실태조사는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사회통합의 문제와 사회적 비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정부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에서 대부분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취업률이 낮고, 취업에 있어서 학력, 한국어 능력, 사회적 자본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취업 분야가 제한적이고 임금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처한 경제적 빈곤이나 출신국의 친정 가족을 도와야 하는 부담 등이 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이유로 분석되었다(설동훈 외, 2005). 최근에는 빈곤이나 친정 원조 같은 직접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이주여성의 역량강화라는 측면에서 직업 활동이 이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뿌리는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이경은·장덕희·김도희, 2010; 박미은·신희정·이미림, 2012). 한편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이 가정 내에서 당사자의 결정권과 자율권을 높이고 평등한 부부관계의 실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2008,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경제적 자립이 역량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능동적인 시민성을 확보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공적 영역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과 그 위치에 대한 자각은 사회참여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통합이 수월해진다는 점에서도 임금노동 참여는 중요성을 갖는다.

본 연구기획단은 위에 서술한 것처럼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이 다양한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고, 결혼이주여성의 노동경험을 분석함에 있어 임금노동과 돌봄노동, 학습노동이 중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결혼이주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는 생애 과정 및 임금 노동, 재생산/돌봄노동, 한국어/한국사회 학습이라는 3종의 역할 수행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이탈경험, 노동형태와 조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재생산/돌봄노동은 결혼으로 이주한 여성이 현실적으로 마주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사회의 기대와 요구가 재생산/돌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임금노동과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갖는다고 보았다. 한국어만 단일하게 사용되는 사회에서 경제활동은 한국어 능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한국어 학습은 이주여성의 노동의 중요한 한 축이다. 결혼이주여성이 '양육자'로 기대되기 때문에 자녀 학습 지도를 위해서 한국어 학습이 의무처럼 작동하는 측면에서도 한국어 학습은 노동이 된다. 한국사회의 직장문화나 일하는 방식을 비롯한 사회 시스템은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사회와는 매우 다르다. 상이한 사회 시스템에 적응해야 하는 것은 이주민이고, 이를 학습하는 것 역시 한국어와는 또 다른 맥락에서 이주여성의 시간과 노력을 필요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주여성이 일방적으로 한국어/한국사회를 배우고 적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어/한국사회 학습을 하나의 노동으로 설정하였다.

임금노동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재생산/돌봄노동, 한국어/한국사회 학습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은 결혼이주여성이 끊임없는 갈등과 협상 속에서 일상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기획하고 조직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들은 삼중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불연속적인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경력 형성에 실패하며, 정부의 취업 지원 정책 역시 장기적 효과를 내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2. 연구 방법 및 대상

결혼이주여성 노동실태조사는 임금노동에 참여하는 이주여성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서울, 경남 진주, 대구, 부산, 전남 목포, 전북 전주, 충북 청주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본부와 6개 지부의 조직을 중심으로 100여명의 인터뷰를 계획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아야 이들의 경제활동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실태조사는 양적 조사가 아니라 질적 조사로 진행되었다. 인터뷰가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될 것이기에 인터뷰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할 7개 지역 활동가·연구자들을 위한 조사원 워크숍을 1회 진행하였다. 또한 인터뷰에서 연구기획단 회의와 조사원 워크숍에서의 토론을 거쳐 공통으로 마련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공통적인 질문은 하루 일과를 비롯한 생활시간,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노동조건과 향후 직업적 전망, 본국과 한국에서의 임금노동 이력, 한국에서 받은 교육 훈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인터뷰에서 충분한 질의를 했는지를 보충·확인할 수 있는 면접요약지를 공통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표 1〉 노동경험 조사 심층면접 질문지

<p>○ 생활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 일과 - 학습노동, 돌봄노동 실태 - 봉사활동 <p>○ 현재 하고 있는 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의 종류 및 내용 - 사회권 - 일을 하는 이유 - 일터에서 어려운 점 - 수입 배분 및 관리 - 교육/훈련 - 향후 전망 	<p>○ 한국 입국 전 노동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의 종류 및 내용 - 일을 한 이유 - 일을 그만 둔 이유 - 입국 전 경력 <p>○ 한국 입국 후 노동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의 종류 및 내용 - 일을 한 이유 - 사회권 - 일터에서 어려웠던 점 - 일을 그만 둔 이유 <p>○ 한국에서 받은 교육/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의 종류 및 내용 - 교육/훈련의 효과
--	---

면접대상자는 전체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및 현재 거주지역별 인구 분포를 반영하여 선정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더하여 기존 연구(고혜원·김상호, 2010; 김승권 외, 2009; 김이선 외, 2006; 장명선·이옥경, 2008)에서 제시된 결혼이주여성 취업형태와 유형을 참고하여 9가지 직업군을 정했다. 그 결과

1) 서비스직, 2) 통·번역직 및 이중언어 관련 강사, 3) 공장직, 4) 사무관리직, 5) 자영업, 6) 학원강사, 7) 부업 및 가내노동, 8) 농림축산어업, 9) 기타로 직업군을 분류하였다.

지역별로 출신국을 고려하여 면접 대상 결혼이주여성을 선정하면서 위 직업군 분류에 따라 각 직업별로 1명 이상씩 배분이 되도록 하였다.

<표 2> 지역별·출신국별 면접참여자 수

출신국 \ 지역	수도권	경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전남	전북	제주	대전 충남북	합계
중국(한족)	8	2	4	3	1	2		2	22
중국(한국계)	9	0	1	2	1	0		1	14
베트남	6	5	9	4	4	4	1	4	37
필리핀	1	1	1	1	1			2	7
일본	1	1			1	1		1	5
캄보디아	1	1	1		1	1			5
몽골	2							1	3
인도네시아	1								1
태국	2								2
네팔	1						1		2
중앙아시아	2								2
러시아				1					1
대만	1								1
미국	1								1
총계	36	10	16	11	9	8	2	11	103

<표 3> 현재 직업별·출신국별 면접참여자 수

출신국 \ 현재 직업	서비스직	통번역·이 중언어	공장 (생산직)	사무 관리	자영 업	학원 강사	부업	농림 축산	기타	합계
중국(한족)	8	2	3		1	1	2		3	20
중국(한국계)	4	4	3	1	2				2	16
베트남	9	4	15	2	1		1	2	2	36
필리핀		3	2		1	2				8
캄보디아	1		4							5
태국		1	1							2
대만		1								1
몽골	1	1							1	3
미국									1	1
일본	1	1		2					1	5
중앙아시아		1					1			2
인도네시아			1							1
러시아					1					1
네팔		1	1							2
총계	24	19	30	5	6	3	4	2	10	103

임금노동 경험을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노동 경험 양상을 보기 위하여 면접참여자는 한국에 입국한 지 1년 이상 된 이들로 한정하였다. 초기 입국자는 한국에서 중층적 노동 경험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면접참여자는 무급 가족 종사를 포함하여 현재 임금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로 제한하였는데, 인터뷰 시점 직전에 임금노동을 그만 둔 경우도 일부 포함되었다. 면접참여자는 대부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각 지부에서 활동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추천과 소개를 통해 모집하였다.

한국어로 면접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혼이주여성 중 조사원 교육을 받은 이가 통역자로 동석하였다. 결혼이주여성 조사원은 통역뿐 아니라 자국어로 된 인터뷰 내용을 한국어로 전사하는 일도 맡아하였다. 면접참여자가 한국에 거주한 지 오래된 경우가 많아 통역자가 동석한 경우는 전체 면접 103건 중 31건이었고, 72건은 통역 없이 면접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103명을 면접하였다.

Ⅱ. 면접대상자의 인구학적·경제적 특성

1. 면접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1) 연령

면접대상자 103명 중 출생연도를 밝히지 않은 3명을 제외한 100명의 평균 연령은 35.3세이다. 20대가 28명, 30대는 46명, 40대 21명, 50대 이상 5명이며, 가장 연령이 낮은 참여자는 21세이고, 가장 연령이 높은 참여자는 66세이다.

<표 4> 연령

(단위: 명, %)

연령(만)		응답자수	비율	유효 응답기준 비율
유효	25세 미만	3	2.9	3.0
	25-30세 미만	25	24.3	25.0
	30-35세 미만	27	26.2	27.0
	35-40세 미만	19	18.4	19.0
	40-45세 미만	12	11.7	12.0
	45-50세 미만	9	8.7	9.0
	50세 이상	5	4.9	5.0
	합계	100	97.1	1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2.9	
평균		35.3세 (최소값 21세 / 최대값 66세)		

1)-1 출신국별 평균 연령

응답자 수가 5명 이상인 국가를 중심으로 출신국별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일본 출신 응답자의 평균 연령이 46.8세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한국계 중국인 응답자의 평균 연령이 42.5세로 높았다. 또한 중국(한족) 출신 응답자의 평균 연령도 36.9세로 전체 응답자 평균 연령인 35.3세보다 높았다. 전체 응답자 평균 연령보다 출신국별 응답자 평균 연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출신국은 필리핀(34.9세), 베트남(29.1세), 캄보디아(28.6세)였다.

〈표 5〉 출신국별 평균 연령

(단위: 명, 세)

출신국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값	상한값		
중국(한족)	19	36.89	5.184	1.189	34.40	39.39	28	46
중국(한국계)	16	42.50	9.055	2.264	37.67	47.33	29	66
베트남	34	29.12	4.028	0.691	27.71	30.52	21	41
필리핀	8	34.88	5.566	1.968	30.22	39.53	27	45
캄보디아	5	28.60	3.647	1.631	24.07	33.13	25	33
태국	2	38.00	0	0	38.00	38.00	38	38
대만	1	54.00					54	54
몽골	3	39.00	3.464	2.000	30.39	47.61	37	43
미국	1	29.00					29	29
일본	5	46.80	5.718	2.557	39.70	53.90	41	56
중앙아시아	2	31.50	2.121	1.500	12.44	50.56	30	33
인도네시아	1	44.00					44	44
러시아	1	59.00					59	59
네팔	2	33.50	0.707	0.500	27.15	39.85	33	34
전체	100	35.36	8.325	0.832	33.71	37.01	21	66

※분산분석에 따른 유의확률 0.000

2) 학력

2)-1 본국 학력

본국 학력¹⁾을 밝히지 않은 1명을 제외한 총 102명의 응답자 중에 가장 다수인 42명(41.2%)이 고졸의 학력을 보였다. 중졸 수준의 학력과 대졸 학력을 가진 응답자가 각각 22명으로 21.4%씩을 차지했다. 또한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소유한 응답자는 7명으로 6.9%를 차지했다.

1) 필리핀 출신 응답자 가운데 고졸 이하는 중졸 이하로, 전문대졸 이하는 고졸 이하로 수정하여 통계를 작성하였는데, 필리핀 학제는 초등 6년, 중·고등 4년으로 교육연수로 보면 고졸은 중졸과, 전문대졸은 고졸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표 6> 본국 학력

(단위: 명, %)

본국 학력		응답자수	비율	유효 응답기준 비율
유효	초졸 이하	7	6.8	6.9
	중등 중퇴 및 중졸	22	21.4	21.6
	고등 중퇴 및 고졸	42	40.8	41.2
	전문대졸 이하	9	8.7	8.8
	대졸	22	21.4	21.6
	합계	102	99.0	1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0	
합계		103	100	

2)-1-1) 출신국별 본국 학력

응답자가 5명 이상인 국가를 중심으로 출신국별 본국 학력을 살펴보면 중국(한국계) 출신 응답자의 81.4%가 고졸 이상의 학력이라고 응답했으며, 중국(한족) 출신 응답자는 79%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경우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보인 응답자가 각각 89%, 100%로 높았다. 또한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응답자 중 각각 16.7% 20.0%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졌다고 응답했다.

<표 7> 출신국별 본국 학력

(단위: 명, %)

출신국	본국 학력					합계	
	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하	전문대졸 이하	대졸		
중국(한족)	빈도	0	4	9	1	5	19
	%		21.1	47.4	5.3	26.3	100
중국(한국계)	빈도	0	3	9	1	3	16
	%		18.8	56.3	6.3	18.8	100
베트남	빈도	6	11	15	3	1	36
	%	16.7	30.6	41.7	8.3	2.8	100
필리핀	빈도	0	3	2	0	3	8
	%		37.5	25.0		37.5	100
캄보디아	빈도	1	1	3	0	0	5
	%	20.0	20.0	60.0			100
태국	빈도	0	0	1	0	1	2
	%			50.0		50.0	100
대만	빈도	0	0	0	0	1	1
	%					100	100

몽골	빈도	0	0	1	1	1	3
	%			33.3	33.3	33.3	100
미국	빈도	0	0	0	0	1	1
	%					100	100
일본	빈도	0	0	2	3	0	5
	%			40.0	60.0		100
중앙아시아	빈도	0	0	0	0	2	2
	%					100	100
인도네시아	빈도	0	0	0	0	1	1
	%					100	100
러시아	빈도	0	0	0	0	1	1
	%					100	100
네팔	빈도	0	0	0	0	2	2
	%					100	100
전체	빈도	7	22	42	9	22	102
	%	6.9	21.6	41.2	8.8	21.6	100

2)-2 한국에서 취득한 학력

한국에서 취득한 학력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77명의 응답자 중 85.7%에 해당하는 66명이 취득 학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 외 현재 대학 재학 중인 응답자가 3명(3.9%), 대학 졸업한 응답자가 2명(2.6%), 대학원 이상 학력을 취득한 응답자가 3명(3.9%)으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초등(야학) 졸업 등의 응답이 있었다. 한국에서 취득한 학력에 대해 주로 제도권 교육과정 중심으로 질의 응답되어 결혼이주여성인 한국 사회에서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한계가 있다.

<표 9> 한국에서 취득한 학력

(단위: 명, %)

한국에서 취득한 학력		응답자수	비율	유효 응답기준 비율
유효	대학 재학	3	2.9	3.9
	대학 졸	2	1.9	2.6
	대학원 이상	3	2.9	3.9
	없음	66	64.1	85.7
	기타	3	2.9	3.9
	합계	77	74.8	1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6	25.2
	합계	103	100	

3) 혼인상태

응답자의 혼인상태를 보면 응답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100명 중 초혼(기혼)²⁾이 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혼과 이혼은 각각 12명, 15명이었다. 사별했다는 응답자도 3명 있었다.

〈표 10〉 혼인상태

(단위: 명, %)

혼인상태	응답자수	비율	유효 응답기준 비율
초혼(기혼)	70	68.0	70.0
재혼	12	11.7	12.0
유효 이혼	15	14.6	15.0
사별	3	2.9	3.0
합계	100	97.1	1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2.9	
합계	103	100	

4) 배우자 직업

면접대상자 중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응답하지 않은 18명을 제외한 응답자 85명의 배우자 직업을 살펴보면 28.2%에 해당하는 24명의 응답자가 배우자 직업이 회사원(사무직)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21.2%의 응답자 18명이 배우자가 기술, 기능직이며 14.1%인 12명의 배우자가 서비스업³⁾에 종사한다고 응답했다. 그 외 배우자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는 6명, 배우자가 농축업이나 공장(생산직)에 종사하는 응답자는 각각 8명, 배우자가 일용직에 종사하거나 기타 혹은 무직인 응답자도 각각 2명, 3명, 4명으로 나타났다.

2) 기혼으로 응답한 경우도 초혼(기혼)에 포함시켰다.

3) 서비스업에는 판매 직원, 안마사, 요리사, 전화상담 등이 해당하고, 기타에는 공무원, 학생 등이 해당한다.

<표 11> 배우자 직업

(단위: 명, %)

배우자 직업	응답자수	비율	유효 응답기준 비율
회사원(사무직)	24	23.3	28.2
자영업	6	5.8	7.1
농축업	8	7.8	9.4
공장, 생산직	8	7.8	9.4
기술, 기능	18	17.5	21.2
서비스(판매 등)	12	11.7	14.1
일용직	2	1.9	2.4
기타	3	2.9	3.5
무직	4	3.9	4.7
합계	85	82.5	1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8	17.5	
합계	103	100	

5) 자녀

5)-1 자녀 수

면접대상자의 평균 자녀수는 1.54명이다. 자녀수는 남편과 본인의 전 결혼 자녀까지 포함한 수이다. 다수의 참여자가 1명 내지 2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응답했는데, 1명의 자녀를 둔 경우는 45명으로 43.7%를 차지했고, 2명의 자녀를 둔 경우는 38명으로 36.9%를 차지했다. 그 외 자녀가 없는 경우는 8명으로 7.8%였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는 12명으로 11.7%를 차지했다.

<표 12> 자녀 수

(단위: 명, %)

자녀 수	응답자수	비율
0명	8	7.8
1명	45	43.7
2명	38	36.9
3명	11	10.7
4명	0	0
5명	1	1.0
합계	103	100
평균	1.54명 (최소값 0/ 최대값 5)	

5)-2 막내자녀 연령

자녀가 없는 경우와 자녀의 연령을 밝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89명의 응답자의 막내자녀 평균 연령은 8.4세이다. 막내자녀 연령이 3~7세인 응답자가 43명으로 응답자의 48.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막내자녀 연령은 8~13세로 26명(29.2%)의 응답자가 해당하는 8~13세이다. 막내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는 6명, 14~19세 사이의 막내자녀를 가진 응답자는 8명, 막내자녀가 성인인 응답자는 6명이었다. 막내자녀 평균 연령이 8.4세라는 점에서 평균적으로 응답자는 돌봄이 많이 필요한 연령대의 자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3> 막내자녀 연령

(단위: 명, %)

막내자녀 연령	응답자수	비율	유효 응답기준 비율
3세 미만	6	5.8	6.7
3-7세	43	41.7	48.3
8-13세	26	25.2	29.2
유효			
14-16세	3	2.9	3.4
17-19세	5	4.9	5.6
성인	6	5.8	6.7
합계	89	86.4	1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4	13.6	
합계	103	100	
평균	8.4세(최소값 0.4세 / 최대값 28세)		

5)-2-1 출신국별 막내자녀 연령

응답자 수가 5명 이상인 출신국별 막내자녀 연령을 살펴보면 중국(한족) 출신의 경우 막내자녀의 연령이 3세~13세를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고, 중국(한국계) 출신 응답자는 막내자녀가 성인인 경우가 30.8%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다른 출신국 응답자에 비해 막내자녀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응답자의 경우는 응답자 전원의 막내자녀 연령이 13세 미만이다.

<표 14> 출신국별 막내자녀 연령

(단위: 명, %)

출신국	막내자녀 연령						전체	
	3세 미만	3~7세	8~13세	14~16세	17~19세	성인		
중국(한족)	빈도	1	7	5	0	1	1	15
	%	6.7	46.7	33.3		6.7	6.7	100
중국(한국계)	빈도	0	4	4	0	1	4	13
	%		30.8	30.8		7.7	30.8	100
베트남	빈도	4	20	8	0	0	0	32
	%	12.5	62.5	25.0				100
필리핀	빈도	0	5	1	0	1	0	7
	%		71.4	14.3		14.3		100
캄보디아	빈도	0	4	1	0	0	0	5
	%		80.0	20.0				100
태국	빈도	0	0	2	0	0	0	2
	%			100				100
대만	빈도	0	0	0	1	0	0	1
	%				100			100
몽골	빈도	0	0	1	1	1	0	3
	%			33.3	33.3	33.3		100
일본	빈도	0	1	2	1	1	0	5
	%		20.0	40.0	20.0	20.0		100
중앙아시아	빈도	1	1	0	0	0	0	2
	%	50.0	50.0					100
인도네시아	빈도	0	0	1	0	0	0	1
	%			100				100
러시아	빈도	0	0	0	0	0	1	1
	%						100	100
네팔	빈도	0	1	1	0	0	0	2
	%		50.0	50.0				100
전체	빈도	6	43	26	3	5	6	89
	%	6.7	48.3	29.2	3.4	5.6	6.7	100

6) 가구 구성원 수 및 형태

면접대상자 전체 103명의 가구 구성원 수를 살펴보면, 혼자 사는 참여자는 7명, 가구 구성원 수가 2명인 경우는 14명, 3명인 경우는 31명, 4명인 경우는 25명, 5명인 경우는 21명이고, 가구구성원 수가 6명 이상인 응답자도 5명 있었다.

<표 15> 가구 구성원 수

(단위: 명, %)

가구 구성원 수	응답자수	비율
혼자	7	6.8
2명	14	13.6
3명	31	30.1
4명	25	24.3
5명	21	20.4
6명 이상	5	4.9
합계	103	100

가구구성 형태를 살펴보면 가장 다수인 50명(48.5%)의 응답자가 본인, 남편, 자녀로 구성된 가구라고 응답했고 본인, 남편, 자녀, 시부모로 구성된 가구라고 응답한 응답자도 21명(20.4%)이었다. 그 외 11명의 응답자는 본인과 자녀로만 구성된 가구였으며, 본인과 남편으로만 구성된 가구도 6명 있었다. 또한 본인, 남편, 자녀, 친정 부모로 구성된 가구는 5명, 본인, 자녀, 친정부모로 구성된 가구는 2명, 본인, 남편과 시부모로 구성된 가구도 1명 있었다.

<표 16> 가구구성 형태

(단위: 명, %)

가구구성 형태	응답자수	비율
혼자	7	6.8
남편	6	5.8
자녀	11	10.7
남편, 자녀	50	48.5
남편, 자녀, 시부모	21	20.4
남편, 자녀, 친정부모	5	4.9
자녀, 친정부모	2	1.9
남편, 시부모	1	1.0
합계	103	100

7) 결혼입국 후 한국 거주기간

면접참여자의 결혼입국 후 한국 거주기간은 평균 8.5년이다. 6년~10년 거주한 응답자가 50명으로 거주기간에 응답한 응답자 93명의 53.8%를 차지했다. 1년~5년 거주한 응답자는 21명, 11년~15년 거주한 응답자는 13명, 16~20년 거주한 응답자는 8명이었으며, 20년 이상 거주한 응답자도 1명 있었다. 응답자의 76.4%가 거주기간이 10년 이하였으며, 응답자 중 거주기간이 가장 긴 경우는 23년이였다.

<표 17> 결혼입국 후 한국 거주기간

(단위: 명, %)

결혼입국 후 한국 거주기간	응답자수	비율	유효 응답기준 비율	
1-5년	21	20.4	22.6	
6-10년	50	48.5	53.8	
유효	11-15년	13	12.6	14.0
	16-20년	8	7.8	8.6
	20년 이상	1	1.0	1.1
	합계	93	90.3	1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0	9.7		
평균	8.5년 (최소값 1년/ 최대값 23년)			

통계청이 발표한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2005년에 한국남자와 결혼한 이주여성의 수가 가장 많아 3만 명이 넘었다. 그 이후로도 2012년까지 해마다 2만 건이 넘기는 했으나 그 수가 차츰 감소했고 2013년에는 2만 건 미만으로 줄었다. 응답자의 76.4%가 10년 이하의 거주기간을 보이는 것은 2005년에 외국인 여성의 결혼 이주가 가장 많았다는 점,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결혼이주여성의 수가 해마다 2만 5천명을 넘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8> 연도별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

(단위: 천 건,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한국남자 + 외국여자	18.8	25.1	30.7	29.7	28.6	28.2	25.1	26.3	22.3	20.6		

*출처: 통계청, 2013 혼인·이혼통계

7)-1 출신국별 결혼 입국 후 거주기간

응답자가 5명 이상인 출신국별 응답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8.49년으로, 일본이 18.4년으로 두드러지게 높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출신국 응답자 평균 거주기간은 대동소이한 편이다. 다만 필리핀 출신 응답자가 타 출신국 응답자에 비해 약간 높은 10.5년이였다. 한국계 중

국민 응답자 평균 거주기간은 8.6년, 캄보디아 출신 응답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7.4년, 중국(한족) 7.3년, 베트남 6.8년이였다.

앞선 본 출신국별 응답자의 평균 연령에서 일본 출신 응답자의 평균 나이가 46.8세로 높은 것은 이들의 결혼 입국 후 거주기간이 18.4년으로 타 출신국 응답자에 비해 눈에 띄게 길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일본 응답자의 다수는 종교를 통해 결혼이주한 경우인데, 90년대 초중반 특정 종교인 간의 국제결혼이 많았던 시기에 한국으로 이주해 온 경우에 해당한다. 한국계 중국인의 경우는 결혼 입국 후 한국 거주기간이 타 출신국에 비해 크게 차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전체 평균 8.5년, 한국계 중국인 평균 8.6년) 평균 연령은 전체 평균 연령 35.3세에 비해 크게 높은 42.5세로 나타난 것은, 한국계 중국인이 결혼으로 인한 한국 이주 당시의 연령이 타국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반면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응답자의 거주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짧은 것은 이들이 평균적으로 다른 출신국 응답자보다 젊은 나이에 결혼으로 이주해 왔음을 반영한다.

<표 19> 출신국별 결혼입국 후 거주기간

(단위: 명, 년)

출신국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값	상한값		
중국(한족)	17	7.29	3.965	.962	5.26	9.33	1	18
중국(한국계)	11	8.64	2.501	.754	6.96	10.32	6	13
베트남	35	6.77	2.911	.492	5.77	7.77	2	16
필리핀	8	10.50	5.099	1.803	6.24	14.76	6	19
캄보디아	5	7.40	2.074	.927	4.83	9.97	4	9
태국	2	13.50	.707	.500	7.15	19.85	13	14
대만	1	17.00					17	17
몽골	3	10.33	.577	.333	8.90	11.77	10	11
미국	1	1.00					1	1
일본	5	18.40	2.608	1.166	15.16	21.64	17	23
중앙아시아	1	9.00					9	9
인도네시아	1	13.00					13	13
러시아	1	6.00					6	6
네팔	2	8.50	4.950	3.500	-35.97	52.97	5	12
전체	93	8.49	4.333	.449	7.60	9.39	1	23

*분산분석에 따른 유의확률 0.000

8) 최초 입국 사유

면접참여자가 최초로 한국에 입국한 사유를 보면 총 응답자 103명 중 결혼으로 최초 입국한 응답자가 86명으로 83.5%를 차지했고, 노동(취업)이 8명으로 7.8%, 친척방문이 4명으로 3.9%, 여행이 3명 2.9%, 그리고 유학이 2명으로 1.9%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다수가 결혼을 통해 한국에 최초로 입국했다.

<표 20> 최초 입국 사유

(단위: 명, %)

최초 입국 사유	응답자수	비율
결혼	86	83.5
유학	2	1.9
노동(취업)	8	7.8
여행	3	2.9
친척방문	4	3.9
합계	103	100

9) 현재 체류자격

응답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102명 면접참여자의 현재 체류자격을 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63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1.8%, 결혼비자로 체류 중인 경우가 25명으로 24.5%, 영주비자를 가지고 체류 중인 경우가 14명으로 13.7%를 차지했다.

<표 21> 현재 체류자격

(단위: 명, %)

현재 체류자격	응답자수	비율	유효 응답기준 비율	
결혼	25	24.3	24.5	
유효	영주	14	13.6	13.7
	한국 국적	63	61.2	61.8
	합계	102	99.0	1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0		
합계	103	100		

9)-1 출신국별 현재 체류자격

전체 응답자 중 국적취득자 비율이 61.8%임에 비교해 한국계 중국인과 베트남 출신 응답자의 국적 취득 비율이 각각 75.0%, 72.2%로 높았다. 한국인 중국계와 베트남 출신 응답자 중 영주 자격으로 거주 중인 응답자 비율은 각각 18.8%, 5.6%에 불과했다. 반면 결혼비자로 체류 중인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24.5%임에 비해 한국계 중국인의 경우는 6.3%로 낮았고,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한족) 출신 응답자는 각각 50.0%, 40.0%, 36.8%로 높았다.⁴⁾

<표 22> 출신국별 현재 체류자격

(단위: 명, %)

출신국	현재 체류자격			전체	
	결혼	영주	한국 국적		
중국(한족)	빈도	7	2	10	19
	%	36.8	10.5	52.6	100
중국(한국계)	빈도	1	3	12	16
	%	6.3	18.8	75.0	100
베트남	빈도	8	2	26	36
	%	22.2	5.6	72.2	100
필리핀	빈도	4	0	4	8
	%	50.0		50.0	100
캄보디아	빈도	2	0	3	5
	%	40.0		60.0	100
태국	빈도	0	0	2	2
	%			100	100
대만	빈도	0	0	1	1
	%			100	100
몽골	빈도	1	1	1	3
	%	33.3	33.3	33.3	100
미국	빈도	1	0	0	1
	%	100			100
일본	빈도	0	4	1	5
	%		80.0	20.0	100
중앙아시아	빈도	0	1	1	2
	%		50.0	50.0	100
인도네시아	빈도	0	1	0	1
	%		100		100
러시아	빈도	1	0	0	1
	%	100			100
네팔	빈도	0	0	2	2
	%			100	100
전체	빈도	25	14	63	102
	%	24.5	13.7	61.8	100

4) 그 외 출신국은 응답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대표성이 너무 낮아 제외하였다.

9)-2 거주기간별 체류자격

거주기간이 11년 이상 된 응답자는 모두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한 상태였다. 인도네시아 출신 응답자 1명, 일본 출신 응답자 4명이 거주기간이 11년 이상이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다. 결혼입국 후 한국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응답자의 다수가 결혼비자로 체류 중이라고 응답한 것은 현재 결혼이주자가 국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 내 거주기간이 최소 2년을 넘어야 하고 국적 신청 후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통상 1.5년~2년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거주기간이 6년~10년인 응답자의 경우는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응답자가 79.6%로 높았는데, 결혼비자로 체류 중인 응답자도 20.4%를 차지했다. 이들을 국적별로 보면 응답자 수가 5명 이상인 국가(중국(한족),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 중 중국(한족) 출신 응답자의 22.2%, 필리핀 출신 응답자의 80%가 결혼비자로 체류 중이라고 응답했다.

<표 23> 결혼입국 후 거주기간별 현재 체류자격

(단위: 명, %)

결혼입국 후 거주기간	현재 체류자격			전체	
	결혼	영주	한국 국적		
1-5년	빈도	13	1	7	21
	%	61.9	4.8	33.3	100
6-10년	빈도	10	7	32	49
	%	20.4	14.3	65.3	100
11-15년	빈도	0	1	12	13
	%		7.7	92.3	100
16-20년	빈도	0	3	5	8
	%		37.5	62.5	100
20년 이상	빈도	0	1	0	1
	%		100		100
전체	빈도	23	13	56	92
	%	25.0	14.1	60.9	100

<표 24> 거주기간 6년-10년인 응답자의 출신국별 현재 체류자격

(단위: 명, %)

출신국	현재 체류자격			전체	
	결혼	영주	한국 국적		
중국(한족)	빈도	2	1	6	9
	%	22.2	11.1	66.7	100
중국(한국계)	빈도	0	3	5	8
	%		37.5	62.5	100
베트남	빈도	1	2	16	19
	%	5.3	10.5	84.2	100
필리핀	빈도	4	0	1	5
	%	80.0		20.0	100
캄보디아	빈도	1	0	3	4
	%	25.0		75.0	100
몽골	빈도	1	1	0	2
	%	50.0	50.0		100
중앙아시아	빈도	0	0	1	1
	%			100	100
러시아	빈도	1	0	0	1
	%	100			100
전체	빈도	10	7	32	49
	%	20.4	14.3	65.3	100

10) 한국에 있는 친정가족 (다중응답)

면접대상자 103명 중 친정 가족이 한국에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42명이었고, 50명의 응답자(전체 응답자 대비 54.3%)는 친정가족이 한국에 없다고 응답했다. 그 외 11명은 이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이다.

한국에 있는 친정가족은 다중응답 방식으로 코딩되어 응답자 수는 42명이지만 전체 응답 수는 63건이다. 친정어머니가 한국에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3명으로 전체 응답자 중 25.0%, 총 42명의 응답자 중 54.8%를 차지한다. 친정아버지가 한국에 들어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0명으로 42명의 응답자 중 23.8%를 차지한다. 친정아버지가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2명의 응답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친정어머니가 함께 들어와 있었다. 친정 여자형제가 한국에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8건으로 친정 남자형제가 들어와 있다고 응답한 4건보다 많았으며, 친정 사촌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응답은 8건이었다.

여자형제나 여자 사촌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경우에 다수의 경우가 이들도 결혼이주로 한국에 들어온 상태였다. 면접에서 상당수의 결혼이주여성은 이미 한국에 결혼이주해 와 있

는 친족이나 지인을 통해 남편을 소개받고, 본인이 본국에 있는 친족이나 지인이 결혼이 주하는 데 매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표 25> 한국에 있는 친정가족 (다중응답)

(단위: 건, %)

한국에 있는 친정가족	응답수	응답건수 대비 비율	응답자수 대비 비율	'있음' 응답자수 대비 비율	
있음	친정 어머니	23	20.4	25.0	54.8
	친정 아버지	10	18.8	10.9	23.8
	친정 남자형제	4	3.5	4.3	9.5
	친정 여자형제	18	15.9	19.6	42.9
	친정 사촌	8	7.1	8.7	10.0
	합계	63			150.0
없음	50	44.2	54.3		
합계	113	100	122.8		

10)-1 출신국별 한국에 있는 친정가족 (다중응답)

출신국별로 한국에 있는 친정가족을 살펴보면 중국(한족),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대만, 몽골 출신 응답자가 친정가족이 한국에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중국(한국계) 출신 응답자의 경우에는 전체 면접참여자 16명 중 12명, 즉 75% 이상이 친정가족이 한국에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모, 삼촌 등 어머니 쪽 친척과 아버지 쪽 친척 모두가 한국에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표 26> 출신국별 한국에 있는 친정가족 (다중응답)

(단위: 건, %)

출신국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친정 남자형제	친정 여자형제	친정 사촌
중국(한족)	빈도	4	3	0	0	1
	%	80.0	60.0			20.0
중국(한국계)	빈도	4	3	2	8	5
	%	33.3	25.0	16.7	66.7	41.7
베트남	빈도	12	4	0	7	1
	%	70.6	23.5		41.2	5.9
필리핀	빈도	2	0	0	1	0
	%	66.7			33.3	
캄보디아	빈도	0	0	1	0	1
	%			50.0		50.0
대만	빈도	1	0	1	0	0
	%	100		100		
몽골	빈도	0	0	0	2	0
	%				100	
전체	빈도	23	10	4	18	8
	%	54.8	23.8	9.5	42.9	19.0

2. 면접대상자의 경제적 특성

1) 월평균 소득

면접대상자 103명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에 응답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6명을 제외한 응답자 97명의 월평균 소득 평균은 약 122만 원이고, 최소값은 0원, 최대값은 550만 원이다.⁵⁾ 45명(46.4%)이 100만~150만 원 정도의 월평균 소득을 벌고 있다고 응답했다.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에 해당한다는 응답자는 29.9%로 29명이었으며,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10.4%인 10명에 불과했다.

300만 원 이상 월평균 소득자의 현재 직업을 살펴보면 통번역 및 이종언어 관련 강사직 1명, 기타 4명(보험설계사, 여행사 가이드, 전담교수, 정치인)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통번역 및 이종언어 관련 강사직에 종사하며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응답자의 경우는 의료관광통역일을 하고 있는 경우였다. 또한 300만 원 이상 월평균 소득자의 출신국을 보면 중국(한족) 1명, 중국(한국계) 1명, 몽골 2명, 미국 1명이었다.

5) 최소값 0원과 최대값 550만 원을 제외한 월수입 평균은 120만 원이다.

<표 27> 월평균 소득

(단위: 명, %)

	월평균 소득	응답자수	비율	유효 응답기준 비율
유효	없음	2	1.9	2.1
	50만 원 미만	7	6.8	7.2
	50-100만 원 미만	20	19.4	20.6
	100-150만 원 미만	45	43.7	46.4
	150-200만 원 미만	13	12.6	13.4
	200-250만 원 미만	3	2.9	3.1
	250-300만 원 미만	2	1.9	2.1
	300만 원 이상	5	4.9	5.2
	합계	97	94.2	100
결측	무응답	2	1.9	
	시스템 결측값	4	3.9	
	합계	6	5.8	
	합계	103	100	
	평균	122만 원 (최소값 0원/ 최대값 550만 원)		

1)-1 출신국별 월평균 소득

응답자가 5명 미만인 국가를 제외하고 출신국별 월평균 소득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평균 125.8만 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았다. 중국(한족) 출신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 평균은 124.2만 원, 필리핀 출신 응답자의 평균은 113.8만 원, 일본 출신 응답자의 평균은 119만 원, 베트남 출신 응답자의 평균은 109.1만 원, 캄보디아 출신 응답자의 평균은 89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28> 출신국별 월평균 소득

(단위: 명, %)

출신국		월평균 소득							전체	
		없음	50만 원 미만	50-100만 원 미만	100-150만 원 미만	150-200만 원 미만	200-250만 원 미만	250-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중국(한족)	빈도	0	3	2	9	4	0	0	1	19
	%		15.8	10.5	47.4	21.1			5.3	100
중국(한국계)	빈도	1	1	3	6	1	2	0	1	15
	%	6.7	6.	20.0	40.0	6.7	13.3		6.7	100
베트남	빈도	0	1	10	16	4	1	1	0	33
	%		3.0	30.3	48.5	12.1	3.0	3.0		100
필리핀	빈도	0	0	1	5	2	0	0	0	8
	%			12.5	62.5	25.0				100
캄보디아	빈도	0	1	1	3	0	0	0	0	5
	%		20.0	20.0	60.0					100
태국	빈도	0	0	0	2	0	0	0	0	2
	%				100					100
대만	빈도	0	0	0	0	1	0	0	0	1
	%					100				100
몽골	빈도	0	0	1	0	0	0	0	2	3
	%			33.3					66.7	100
미국	빈도	0	0	0	0	0	0	0	1	1
	%								100	100
일본	빈도	0	0	1	3	1	0	0	0	5
	%			20.0	60.0	20.0				100
중앙아시아	빈도	1	1	0	0	0	0	0	0	2
	%	50.0	50.0							100
인도네시아	빈도	0	0	0	1	0	0	0	0	1
	%				100					100
러시아	빈도	0	0	0	0	0	0	1	0	1
	%							100		100
네팔	빈도	0	0	1	0	0	0	0	0	1
	%			100						100
전체	빈도	2	7	20	45	13	3	2	5	97
	%	2.1	7.2	20.6	46.4	13.4	3.1	2.1	5.2	100

<표 29> 출신국별 월평균 소득 평균

(단위: 명, 만 원)

출신국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중국(한족)	19	124.16	114.444	10	550
중국(한국계)	15	125.80	95.769	0	400
베트남	33	109.09	44.973	25	250
필리핀	8	113.75	29.246	70	160
캄보디아	5	89.00	41.292	25	120
태국	2	110.00	14.142	100	120
대만	1	160.00		160	160
몽골	3	290.00	215.174	70	500
미국	1	300.00		300	300
일본	5	119.00	29.665	70	150
중앙아시아	2	10.00	14.142	0	20
인도네시아	1	125.00		125	125
러시아	1	250.00		250	250
네팔	1	90.00		90	90
전체	97	121.97	86.038	0	550

※분산분석에 따른 유의확률 0.027

1)-2 현재 직업별 월평균 소득 평균

현재 직업별로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부업을 하는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 평균이 23.8만 원으로 가장 낮았고, 자영업 종사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 평균이 177.5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통번역 및 이중언어 관련 강사직 종사자의 월평균 소득 평균은 109만 원, 공장(생산직) 종사자는 120.3만 원, 사무관리 종사자는 139만 원, 학원강사는 123.3만 원, 농림축산 종사자는 75만 원이었다. 기타의 경우 월평균 소득 평균이 가장 높은 것은 227.5만 원이었는데 이는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의 응답자 5명 중 4명이 기타(보험설계사, 여행사 가이드, 어학전담 교수, 정치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이 중 3명은 월평균 소득이 4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표 30〉 현재 직업별 월평균 소득 평균

(단위: 명, 만 원)

현재 직업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값	상한값		
서비스직	23	93.87	46.357	9.666	73.82	113.92	0	170
통번역 및 이중언어	18	109.00	69.242	16.321	74.57	143.43	10	300
공장 (생산직)	29	120.34	37.295	6.926	106.16	134.53	50	250
사무관리	5	139.00	34.351	15.362	96.35	181.65	120	200
자영업	4	177.50	63.443	31.721	76.55	278.45	100	250
학원강사	3	123.33	25.166	14.530	60.82	185.85	100	150
부업	4	23.75	20.565	10.282	-8.97	56.47	0	50
농림축산	1	75.00					75	75
기타	10	227.50	193.323	61.134	89.21	365.79	50	550
전체	97	121.97	86.038	8.736	104.63	139.31	0	550

※분산분석에 따른 유의확률 0.001

1)-3 혼인상태별 월평균 소득 평균

혼인상태별 월평균 소득 평균을 살펴보면 초혼(기혼)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 평균은 115.3만 원, 재혼 응답자는 137.1만 원, 이혼 응답자는 140.4만 원, 사별 응답자는 140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31〉 혼인상태별 월평균 소득 평균

(단위: 명, 만 원)

혼인상태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초혼(기혼)	66	115.32	85.482	10	550
재혼	12	137.08	133.731	0	500
이혼	14	140.36	43.565	100	250
사별	3	140.00	26.458	110	160
전체	95	122.54	86.854	0	550

2) 월평균 가구 소득

월평균 가구 소득에 대한 질문에 25명의 응답자가 남편의 소득을 모른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전체 면접대상자의 24.3%를 차지하여 약 4명 중의 1명의 참여자가 남편 소득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가구 소득에 응답하지 않은 참여자를 제외한 응답자 65명의 가구 소득을 살펴보면 가구 소득이 100만~200만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3.8%로 22명이었고, 200만~300만 미만은 26.2%(17명), 300만~400만 미만은 18.5%(12명), 400만~500만 미만은 12.3%(8명), 500만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9.2%(6명)였다.

응답자 65명의 월평균 가구 소득의 평균은 280.1만 원이고, 월평균 가구 소득의 최소값은 100만 원, 최대값은 800만 원이다. 이를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의 평균 122만 원과 비교해 보면, 응답자는 평균적으로 월평균 가구 소득의 43.5% 정도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가족 내 무급 돌봄노동을 담당하면서도 임금노동을 통해 월평균 가구 소득의 43.5% 정도 수입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소득이 가구 소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가구의 생계를 위해 이들의 임금노동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월평균 가구 소득

(단위: 명, %)

	월평균 가구 소득	응답자수	비율	유효 응답기준 비율
유효	100만 원 미만	0	0.0	0.0
	100-200만 원 미만	22	21.4	33.8
	200-300만 원 미만	17	16.5	26.2
	300-400만 원 미만	12	11.7	18.5
	400-500만 원 미만	8	7.8	12.3
	500만 원 이상	6	5.8	9.2
	합계	65	63.1	100
결측	모름	25	24.3	
	무응답	4	3.9	
	시스템 결측값	9	8.7	
	합계	38	36.9	
전체		103	100	
평균	280.1만 원 (최소값 100만 원/ 최대값 800만 원)			

2)-1 가구 구성 형태별 월평균 가구 소득

가구 구성 형태별 월평균 가구 소득을 비교해보면 남편 및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월평균 가구 소득이 341.5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자녀와 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의 월평균 가구 소득이 131만 원으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혼자 사는 경우(172.5만 원)보다 더 낮은 것이다. 이는 자녀 돌봄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제한된 결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월평균 가구 소득이 낮은 가구는 남편, 자녀, 친정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로 가구 소득이 평균 182.5만 원이었다. 남편, 자녀, 시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월평균 가구 소득이 299.6만 원이라는 점과 비교해볼 때, 친정부모와 거주하는 경우 시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보다 100만 원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가구구성 형태별 월평균 가구소득 평균

(단위: 명, 만 원)

가구구성 형태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값	상한값		
혼자	6	172.50	47.090	19.225	123.08	221.92	120	250
남편	4	260.00	181.108	90.554	-28.18	548.18	120	500
자녀	5	131.00	23.022	10.296	102.41	159.59	110	160
남편, 자녀	30	341.47	169.892	31.018	278.03	404.91	104	800
남편, 자녀, 시부모	13	299.62	170.959	47.415	196.31	402.92	150	800
남편, 자녀, 친정부모	4	182.50	85.000	42.500	47.25	317.75	100	300
자녀, 친정부모	2	202.50	137.886	97.500	-1036.35	1441.35	105	300
남편, 시부모	1	200.00					200	200
전체	65	280.06	162.825	20.196	239.72	320.41	100	800

※분산분석에 따른 유의확률 0.051

3) 한국 입국 전 노동경험

3)-1 한국 입국 전 종사 직종 (다중응답)

이 항목은 한국 입국 전 종사했던 일을 모두 나열하는 방식으로 조사되어 다중응답으로 코딩하고 통계 처리되었다. 면접대상자의 한국 입국 전 종사 직종을 살펴보면 서비스직과 공장(생산직)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서비스직과 공장에 종사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각각 35명으로 전체 응답자 103명의 34.0%가 이 직종에 종사한 경험이 있다. 교사, 간호사, 통역 등 '전문직'에 종사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총 2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1.4%를 차지했다. 단순사무(관리)직에 종사했던 적이 있는 응답자도 21명으로 20.4%를 차지했다. 그 외 무급 가족노동에 종사했던 응답자는 13명, 아르바이트 9명, 자영업 7명, 농업 3명으로 각각 12.6%, 8.7%, 6.8%, 2.9%를 차지했다. 또한 한국 입국 전 일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4명으로 3.9%로 나타났다.

<표 34> 한국 입국 전 종사 직종 (다중응답)

(단위: 건, % / 응답자수: 103명)

한국 입국 전 종사 직종	응답수	응답수 대비 비율	사례수 대비 비율
무급가족노동	13	8.7	12.6
서비스직(판매 등)	35	23.5	34.0
전문직(교사, 간호사, 통역)	22	14.8	21.4
공장(생산직)	35	23.5	34.0
단기 아르바이트	9	6.0	8.7
단순 사무	21	14.1	20.4
자영업	7	4.7	6.8
농업	3	2.0	2.9
없음	4	2.7	3.9
전체	149	100	144.7

3)-1-1 출신국별 한국 입국 전 종사 직종 (다중응답)

무급 가족노동에 종사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총 13명으로 베트남 9명, 캄보디아 3명, 네팔 1명이었다.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 응답자에서 무급 가족노동 종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은 이들의 학력과 관련이 있다. 면접에서 캄보디아, 베트남 출신 응답자 중에 정규 학교 교육을 오래 받지 못하고 일찍 학교 교육을 그만 둔(혹은 마친) 후 무급 가족노동(특히 농사일)에 종사한 경험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5> 출신국별 한국 입국 전 종사 직종 (다중응답)

(단위: 건, %)

출신국	한국 입국 전 종사 직종									
	무급 가족노동	서비스업	전문직 (교사, 간호사, 통역 등)	공장 (생산직)	아르바이 트	단순사무	자영업	농업	없음	
중국(한족)	빈도	0	9	4	6	2	5	1	1	0
	%		45.0	20.0	30.0	10.0	25.0	5.0	5.0	
중국(한국계)	빈도	0	3	3	4	2	8	4	1	0
	%		18.8	18.8	25.0	12.5	50.0	25.0	6.3	
베트남	빈도	9	15	2	18	2	3	2	1	1
	%	25.0	41.7	5.6	50.0	5.6	8.3	5.6	2.8	2.8
필리핀	빈도	0	2	3	0	0	1	0	0	2
	%		25.0	37.5			12.5			25.0
캄보디아	빈도	3	1	1	2	0	0	0	0	0
	%	60.0	20.0	20.0	40.0					
태국	빈도	0	0	0	1	0	0	0	0	1
	%				50.0					50.0
대만	빈도	0	1	1	0	1	0	0	0	0
	%		100	100		100				
몽골	빈도	0	1	3	1	0	1	0	0	0
	%		33.3	100	33.3		33.3			
미국	빈도	0	0	1	0	0	0	0	0	0
	%			100						
일본	빈도	0	1	1	1	1	3	0	0	0
	%		20.0	20.0	20.0	20.0	60.0			
중앙아시아	빈도	0	2	0	1	0	0	0	0	0
	%		100		50.0					
인도네시아	빈도	0	0	1	0	1	0	0	0	0
	%			100		100				
러시아	빈도	0	0	1	0	0	0	0	0	0
	%			100						
네팔	빈도	1	0	1	1	0	0	0	0	0
	%	50.0		50.0	50.0					
전체	빈도	13	35	22	35	9	21	7	3	4
	%	12.6	34.0	21.4	34.0	8.7	20.4	6.8	2.9	3.9

3)-2 한국 입국 전 노동 기간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알 수 없는 16명을 제외한 응답자 87명의 한국 입국 전 노동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5.5년이고, 최소값은 노동기간 없음, 최대값은 18년이다. 노동기간이 5년~10년 미만인 응답자가 26명(29.9%)으로 가장 많았고, 2년~5년 미만인 응답자가 25명(28.7%)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 노동기간이 전혀 없는 응답자는 4명, 10년~15년 미만인 응답자는 9명, 15년 이상인 응답자는 7명으로 나타났다.

<표 36> 한국 입국 전 노동 기간

(단위: 명, %)

한국 입국 전 노동 기간	응답자수	전체 참여자 대비 비율	유효 응답자 대비 비율
없음	4	3.9	4.6
유효 2년 미만	16	15.5	18.4
2-5년 미만	25	24.3	28.7
5-10년 미만	26	25.2	29.9
10-15년 미만	9	8.7	10.3
15년 이상	7	6.8	8.0
합계	87	84.5	1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6	15.5	
전체	103	100	
평균	5.5년 (최소값 0년/ 최대값 18년/표준편차 4.62)		

3)-2-1 출신국별 한국 입국 전 노동 기간

한국 입국 전 노동 기간을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입국 전 노동기간이 전혀 없는 응답자는 베트남과 필리핀, 태국 출신이었고, 입국 전 노동 기간이 15년 이상인 응답자의 출신국을 보면 중국(한족) 2명, 한국계 중국인 3명, 대만 1명, 몽골 1명이었다. 이는 응답자의 한국 입 국시 연령, 학력 수준 등이 출신국별로 상이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7> 출신국별 한국 입국 전 노동 기간

(단위: 명)

출신국	입국 전 전체 노동 기간						전체
	없음	2년 미만	2년~ 5년 미만	5년~ 10년 미만	10년~ 15년 미만	15년 이상	
중국(한족)	0	5	3	6	3	2	19
중국(한국계)	0	3	3	2	2	3	13
베트남	1	7	11	10	1	0	30
필리핀	2	0	2	4	0	0	8
캄보디아	0	1	1	0	1	0	3
태국	1	0	0	1	0	0	2
대만	0	0	0	0	0	1	1
몽골	0	0	1	1	0	1	3
일본	0	0	2	2	1	0	5
중앙아시아	0	0	1	0	0	0	1
러시아	0	0	0	0	1	0	1
네팔	0	0	1	0	0	0	1
전체	4	16	25	26	9	7	87

3)-2-2 출신국별 한국 입국 전 노동 기간 평균

출신국별 한국 입국 전 노동 기간 평균을 비교해보면 응답자 전체 평균인 5.6년보다 평균 노동 기간이 긴 국가로는 중국(한족) 6.3년, 중국(한국계) 7.9년, 일본 6.2년 등이다.⁶⁾ 반면 베트남, 필리핀 출신 응답자의 평균 노동 기간은 각각 3.8년, 3.6년으로 전체 평균 5.6년보다 짧았다.

6) 그 외 캄보디아, 대만, 몽골, 러시아 출신 응답자의 노동기간 평균도 전체 평균인 5.6년보다 길지만 응답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제외한다.

<표 38> 출신국별 한국 입국 전 노동 기간 평균

(단위: 명, 년)

출신국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중국(한족)	19	6.342	4.8991	0.5	17.0
중국(한국계)	13	7.908	6.2097	0.8	18.0
베트남	30	3.807	2.6898	0	10.0
필리핀	8	3.625	3.1595	0	9.0
캄보디아	3	5.667	6.4291	1.0	13.0
태국	2	3.000	4.2426	0	6.0
대만	1	16.000		16.0	16.0
몽골	3	8.667	7.6376	2.0	17.0
일본	5	6.200	2.4900	4.0	10.0
중앙아시아	1	3.000		3.0	3.0
러시아	1	13.000		13.0	13.0
네팔	1	4.000		4.0	4.0
전체	87	5.546	4.6249	0	18.0

4) 한국 입국 후 노동경험

4)-1 현재 직업

면접대상자 103명의 현재 직업을 살펴보면 공장(생산직)에 종사하는 응답자가 30명(29.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응답자수가 24명(23.3%)으로 많았고, 통번역 및 이중언어 영역 종사자도 19명(18.4%)에 달했다. 그 외 직종 종사자로는 사무관리 5명(4.9%), 자영업 6명(5.8%), 학원강사 3명(2.9%), 부업 종사자 4명(3.9%), 농림축산 종사자 2명(1.9%)이었으며, 기타 직종 종사자가 10명이었다. 기타 직종에는 보험설계사, 여행 가이드, 정치인, 강사 및 연구원, 고물상 근무, 간호보조, 홈패션, 개인지도, 청원경찰 등이 있었다.

<표 39> 현재 직업

(단위: 명, %)

현재 직업	응답자수	비율
서비스직	24	23.3
통번역 및 이중언어	19	18.4
공장(생산직)	30	29.1
사무관리	5	4.9
자영업	6	5.8
학원강사	3	2.9
부업	4	3.9
농림축산	2	1.9
기타	10	9.7
합계	103	100

4)-2 한국 입국 후 종사 직업 (다중응답)

면접대상자가 한국 입국 후 종사했던 모든 직종을 조사하여 다중응답으로 코딩한 뒤 통계 처리한 결과를 보면, 가장 다수의 응답자가 종사한 적이 있는 직종은 공장(생산직)이었다. 공장(생산직)에 종사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46명으로 전체 응답자 103명 대비 44.7%이었다. 그리고 서비스직에 종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응답자는 43명으로 41.7%에 해당했다. 정부 주도 다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만들어진 통·번역 및 이중언어 관련 직종에 종사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36명으로 35.0%에 해당했다. 그 외 사무관리직에 종사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9명이었고, 자영업은 12명, 학원강사는 15명, 부업은 18명, 농림축산업은 8명, 기타는 13명이었다. 여기서 한국 입국 이후 학원강사, 부업, 농림축산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각각 15명, 18명, 8명인 것에 비해, 현재 이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응답자는 각각 3명, 4명, 2명으로 그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면접을 통해 보면 부업(가내노동)은 대체로 응답자가 지인의 소개로 잠깐 하다가 다른 직장을 구하게 되면서 그만두거나 시간 있을 때 ‘틈틈이’ 하는 일이다. 결혼이주여성이 종사하는 학원강사 일자리 역시 그다지 안정적이거나 수입이 보장되는 일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회화 학원 강사’라고 하면 영어를 가르치는 백인 원어민이 누리는 ‘지위’를 떠올리지만, 면접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이 일자리가 장시간의 저임금 노동이며 고용이 불안정하고 돌봄노동을 병행할 수 없는 일자리라고 이야기하였다. 중국이나 필리핀 출신 결혼 이주민의 경우에 입국 초기에 학원강사를 한 경험이 종종 있지만 이러한 일자리의 특성으로 인해 오랫동안 이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표 40> 한국 입국 후 종사 직업 (다중응답)

(단위: 건, % / 응답자수: 103명)

한국 입국 후 종사 직업	응답수	응답수 대비 비율	응답자(사례) 대비 비율
서비스직	43	21.5	41.7
통번역 및 이중언어	36	18.0	35.0
공장 (생산직)	46	23.0	44.7
사무관리	9	4.5	8.7
자영업	12	6.0	11.7
학원강사	15	7.5	14.6
부업	18	9.0	17.5
농림축산	8	4.0	7.8
기타	13	6.5	12.6
합계	200	100	194.2

4)-2-1 출신국별 한국 입국 후 종사 직업 (다중응답)

응답자 수가 5명 이상인 출신국별로 한국 입국 이후 종사 직업을 살펴보면, 중국(한족)과 중국(한국계) 출신 응답자 중에는 서비스직 종사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은 공장(생산직)에 종사한 적이 있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필리핀은 학원강사로 일한 적이 있는 응답자가 75%로 가장 다수를 차지했고, 일본은 통·번역 및 이중언어 관련 직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출신국별로 종사 직업 분포를 보면, 중국(한족)의 경우 한국 입국 후 종사 직종이 다양하게 분포하지만 대체로 서비스직(응답자의 65.0%), 공장(생산직)(응답자의 35.0%), 통·번역 및 이중언어 직종(응답자의 30.0%)에 많은 응답자가 종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한국계) 출신의 응답자의 경우에는 종사 직업 분포가 더 다양한데, 서비스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50.0%, 통·번역 및 이중언어 직종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31.3%, 공장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31.3%, 자영업과 학원강사, 기타 직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25.0%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경우는 공장(생산직)(61.1%), 서비스직(41.7%), 통번역 및 이중언어 직종(25%), 부업(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 역시 공장(생산직)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8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밖에 통·번역 및 이중언어 직종 종사자가 40%를 차지했다. 필리핀 출신 응답자를 보면 학원강사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75%로 눈에 띄게 높았고, 그 밖에 공장(생산직)과 통·번역 및 이중언어 직종이 각각 37.5%, 서비스직과 부업이 각각 25%였다. 일본 출신의 응답자는 통·번역 및 이중언어 직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80%로 가장 높았고, 사무관리와 서비스직에 종사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각각 40%였다.

〈표 41〉 출신국별 한국 입국 후 종사 직업 (다중응답)

(단위: 건, %)

출신국	한국 입국 후 종사 직업									
	서비스직	통번역, 이중언어	공장 (생산직)	사무관리	자영업	학원강사	부업	농림축산	기타	
중국(한족)	빈도	13	6	7	1	2	4	4	1	4
	%	65.0	30.0	35.0	5.0	10.0	20.0	20.0	5.0	20.0
중국(한국계)	빈도	8	5	5	2	4	4	1	1	4
	%	50.0	31.3	31.3	12.5	25.0	25.0	6.3	6.3	25.0
베트남	빈도	15	9	22	2	3	0	9	3	2
	%	41.7	25.0	61.1	5.6	8.3		25.0	8.3	5.6
필리핀	빈도	2	3	3	0	1	6	2	1	0
	%	25.0	37.5	37.5		12.5	75.0%	25.0	12.5	
캄보디아	빈도	1	2	4	0	0	0	0	1	0
	%	20.0	40.0	80.0					20.0	
태국	빈도	0	1	1	0	0	0	1	0	0
	%		50.0	50.0				50.0		
대만	빈도	0	1	0	0	0	0	0	0	0
	%		100							
몽골	빈도	1	1	1	2	0	0	0	0	1
	%	33.3	33.3	33.3	66.7					33.3
미국	빈도	0	0	0	0	0	1	0	0	1
	%						100			100
일본	빈도	2	4	0	2	0	0	0	1	1
	%	40.0	80.0		40.0				20.0	20.0
중앙아시아	빈도	0	1	1	0	1	0	1	0	0
	%		50.0	50.0		50.0		50.0		
인도네시아	빈도	0	0	1	0	0	0	0	0	0
	%			100						
러시아	빈도	0	1	0	0	1	0	0	0	0
	%		100			100				
네팔	빈도	1	2	1	0	0	0	0	0	0
	%	50.0	100	50.0						
전체	빈도	43	36	46	9	12	15	18	8	13
	%	41.7	35.0	44.7	8.7	11.7	14.6	17.5	7.8	12.6

5) 한국 입국 후 받은 교육

한국 입국 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복지관, 기타 이주민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67명의 응답자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3명의 응답자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58명(82.9%)은 한국어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12명(17.1%)은 한국어교육을 받지 않았다. 한국어교육 외 기타 교육 경험을 살펴보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67명 중 44명(교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70명 중에서는 약 63.8%)이 기타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한국 입국 후 교육 이수 여부

(단위: 명, %)

한국 입국 후 교육 이수 여부	응답자수	비율	유효 응답자 대비 비율
있다	67	65.0	95.7
유효 없다	3	2.9	4.3
합계	70	68.0	1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3	32.0	
합계	103	100	

〈표 43〉 한국 입국 후 한국어교육 이수 여부

(단위: 명, %)

한국 입국 후 한국어교육 이수 여부	응답자수	비율	유효 응답자 대비 비율
받음	58	56.3	82.9
유효 받지 않음	12	11.7	17.1
합계	70	68.0	1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3	32.0	
합계	103	100	

〈표 44〉 한국 입국 후 기타교유 이수 여부

(단위: 명, %)

입국 후 기타 교육 이수 여부	응답자수	비율	유효 응답자 대비 비율
받음	44	42.7	63.8
유효 받지 않음	25	24.3	36.2
합계	69	67.0	1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4	33.0	
합계	103	100	

6) 향후 희망 직업

면접대상자가 향후 희망하는 직업을 살펴보면 이 항목에 응답한 응답자 90명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22명(유효 응답자 수 대비 24.4%)의 응답자가 자영업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19명(유효 응답자 수 대비 21.1%)으로 많았다. 결혼이주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다양하지 않고 ‘괜찮은’ 일자리는 더욱 없는 상황에서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자영업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도 현재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한 응답자의 현재 직업을 살펴보면 서비스직 3명, 통번역 및 이종언어 관련 직종 4명, 공장(생산직) 4명, 사무관리직 2명, 자영업 3명, 학원강사 1명, 기타 2명이다. 면접을 통해 보면 현재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응답은 현재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기보다 더 괜찮은 일자리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현재 직업이라도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인 경우가 많았다. 기타로는 강사 및 교수, 공무원, 보육관련 직업, 사회복지 관련 직업, 종교인, 비영리단체 등을 희망하였다.

<표 45> 향후 희망 직업

(단위: 명, %)

향후 희망 직업	응답자수	비율	유효 응답자 대비 비율
현재일	19	18.4	21.1
서비스직	10	9.7	11.1
통번역 및 이종언어	8	7.8	8.9
사무관리	6	5.8	6.7
유효 자영업	22	21.4	24.4
학원강사	1	1.0	1.1
농림축산	1	1.0	1.1
기타	23	22.3	25.6
합계	90	87.4	1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3	12.6	
합계	103	100	

<표 46> 현재 직업별 향후 희망 직업

(단위: 명, %)

입국 후 현재 직업	향후 희망 직업								전체	
	현재일	서비스직	통번역, 이중언어	사무관리	자영업	학원강사	농림축산	기타		
서비스직	빈도	3	2	1	1	9	0	1	5	22
	%	13.6	9.1	4.5	4.5	40.9		4.5	22.7	100
통번역, 이중언어	빈도	4	1	1	2	1	1	0	8	18
	%	22.2	5.6	5.6	11.1	5.6	5.6		44.4	100
공장 (생산직)	빈도	4	5	4	1	6	0	0	4	24
	%	16.7	20.8	16.7	4.2	25.0			16.7	100
사무관리	빈도	2	0	1	1	1	0	0	0	5
	%	40.0		20.0	20.0	20.0				100
자영업	빈도	3	0	0	0	1	0	0	1	5
	%	60.0				20.0			20.0	100
학원강사	빈도	1	0	1	1	0	0	0	0	3
	%	33.3		33.3	33.3					100
부업	빈도	0	1	0	0	0	0	0	0	1
	%		100							100
농림축산	빈도	0	0	0	0	2	0	0	0	2
	%					100				100
기타	빈도	2	1	0	0	2	0	0	5	10
	%	20.0	10.0			20.0			50.0	100
전체	빈도	19	10	8	6	22	1	1	23	90
	%	21.1	11.1	8.9	6.7	24.4	1.1	1.1	25.6	100

7) 경력 개발 계획

면접대상자의 경력 개발 계획에 대해 살펴보면 응답한 84명 중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가 25명(29.8%)로 가장 많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천 중인 응답자도 24명(28.6%)이었다. 그 외에도 경력 개발에 대한 마음은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16명(19.0%), 한국어를 배우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12명(14.3%), 돈을 아껴 모으고 있다는 응답이 7명(8.3%)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이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 어려움이 많고 임금노동에서 더 나은 전망을 갖기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응답자는 경력을 개발하고 더 나은 삶을 기획하기 위해 나름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표 47> 경력 개발 계획

(단위: 명, %)

경력 개발 계획		응답자수	비율	유효 응답자 대비 비율
유효	구체적 계획 실천 중	24	23.3	28.6
	마음은 있으나 구체적이지 못함	16	15.5	19.0
	한국어 배움	12	11.7	14.3
	돈을 아끼고 모음	7	6.8	8.3
	없음	25	24.3	29.8
	합계	84	81.6	1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9	18.4	
합계		103	100	

Ⅲ. 임금노동 실태

1.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이유

면접참여자에게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했을 때 선주민 기혼 여성이 일하는 이유와 비슷한 응답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결혼이주여성으로서 한국과 본국 사회에서 그녀들이 차지하고 있는 독특한 위치에서 기인하는 조금은 다른 이유도 들을 수 있었다.

일을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가장 먼저 돌아오는 답변은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⁷⁾ 그렇지만 여성이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는 다양했다. 남편이 일차적인 생계부양자 역할을 하고 여성은 자녀의 식비, 의류비, 교육비 등을 보조하기 위해 일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었다. 그렇지만 여성이 함께 돈을 벌어야만 생활비, 자녀 양육비, 저축 등을 댈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때로는 여성의 소득이 주 수입원이 되거나 여성만이 임금노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성이 주된 생계부양자가 되는 것은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남편이 물리적으로 부재하여 자신밖에 돈을 벌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경우도 있었지만, 남편과 함께 살고 있지만 질병을 앓고 있거나 장기간 무직 상태에 있어 돈을 벌 수 없거나 심지어 경제활동을 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남편이 건설, 설비, 농사 등 정기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여성의 정기적인 소득 없이는 안정적인 가계 운영이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여성이 주 소득자로 일을 하는 이유가 남편의 무능력이거나 결혼 당시에 들은 정보와는 다른 사실과 연결된 경우임을 다음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근데 브로커가 그때는 사기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 신랑이 부자다, 돈이 많다, 회사 다닌다, 그러면 니가 거기 가면은 부모님한테 다달이 또 돈 부쳐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왔거든요, 옛날에는. 여기 나오다 보니까 아니야. 그니까 우리 신랑 집도 없고, 돈도 안 벌고, 노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때문에 완전히 다른.” (네팔, 믹마(가명), 34세, 13년 거주, 현재 공장노동)

네팔 출신 믹마는 2002년에 한국에 온 이후 친정에 세 번 다녀온 기간과 공장에서 일감이 없어서 며칠 쉰 것 이외에는 가방공장, 공공근로, 통신사 통역 등을 다니며 계속 일을 하

7) 2005년 실태조사에서도 일을 하는 이유는 가족의 생계유지(26%), 생활비 보충(25%), 자녀 교육비 충당(17%) 등 경제적 이유가 대부분이었다(설동훈 외, 2005).

였다. 남편은 돈을 벌지 않는 것은 물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도박을 하느라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5년쯤 전에야 이제 자신도 나이가 들만큼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일을 하기 시작해서 한 달에 70만 원 정도 생활비를 주고 있다. 중국 한족 출신 송미령(가명, 30세, 4년 거주, 현재 학원 강사)은 유학 도중 현재의 남편을 만났고 졸업 후 중국에 돌아가 1년 정도 일하다가 결혼비자로 다시 입국했다. 그런데 남편은 그녀가 입국하자마자 아무 말 없이 일을 그만두었고, 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식으로 모두 날렸다. 송미령은 “처음에는 진짜 돈 없어서, 한 푼도 없어서” 일을 시작했고, 지난 4년 동안 학원강사일을 하면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왔다. 이제는 이런 삶에 지쳐 남편과 헤어지고 중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다.

남편과의 큰 연령차도 여성이 지금 당장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 여성의 경우 이러한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대개 남편과 스무 살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났다. 이들로서는 가까운 미래에 남편이 은퇴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자금과 자녀 교육비를 미리 마련해놓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에서 온 20대 후반의 보선화(가명, 28세, 7년 거주, 현재 부업)는 7살 아들과 17개월 된 쌍둥이를 키우며 세 가지 부업을 동시에 하고 있어 하루 수면 시간이 두세 시간에 불과하다.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하지만 그녀는 18살의 나이 차이를 생각할 때 자신이 젊을 때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캄보디아 여성 노혜인(가명, 32세, 8년 거주, 현재 공장노동)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

“제가 왜 일을 하나면 집에만 있으면 너무 심심하고 회사 일을 하면서 여러 나라 친구도 만나 재미있고,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생활을 너무 어렵고 남편이 혼자 돈을 버는 것보다 제가 같이 돈을 벌면 가족의 생활에 큰 도움을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일을 해요. 그리고 현재 제 남편이 나이가 48세 되고 내후년 되면 나이가 50세 돼요. 우리 남편이 조선소 일을 하고 있어서 나이가 많으면 일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캄보디아, 노혜인(가명), 32세, 8년 거주, 현재 공장노동)

한편 일을 하는 이유로 “집에 있으면 심심하다”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결혼이주 후 남편과 남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집에만 있는 것은 외로움과 고립감, 지루함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하는 것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사람과 만나고 한국어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선택이다. 여성은 시공간적으로 가족에만 얽매어 있기보다 일을 통해 이른바 ‘사회생활’에 참여하면서 가족 이외

8) 이는 결혼비자로 입국한 이후의 거주기간이다. 송미령은 2007년에 유학비자로 처음 한국에 왔고, 2010년 졸업 후 본국에 돌아가서 1년 일하다가 2011년에 결혼비자로 다시 한국에 왔다. 남편은 유학을 하던 중 만났다.

의 사람을 접하고, 한국어와 한국사회를 익히며, 한국사회에서 노동하는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하고 있다.

“한국에 왔을 때 친구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너무 외로웠어요. 집에만 있는 것도 답답했어요. 한국어를 잘 못해서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 남편이 처음에 반대했어요. 무시당할까봐 걱정을 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사람들과 자꾸 대화하고 그래야만 한국어 실력이 늘고 자신감도 생길 것 같아서 남편을 설득해서 일을 시작했었어요. 자신 있게 나가니까, 한국말 하니까 소통되잖아요.” (중국(한족), 서가혜(가명), 37세, 11년 거주⁹⁾, 현재 중국어 개인과외)

일을 하는 것은 아내, 어머니, 딸과 같이 가족 내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 확립에 있어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하는 여성을 만날 수 있었다. 또한 일의 의미를 자신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찾으면서 관계성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기도 하였다.

“집에만 있는 주부들 보면 그런 게 부러운 건 아니에요. 안 부러워요. 왜냐면 사람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일단은 제가 남편의 와이프예요, 여자예요, 애기 엄마예요, 그리고 엄마 딸이에요. 인생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된다. 제가 누구예요? 그걸 찾아야 되죠. 그게 문제죠. 제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들어도 맨날 애기 키우고 산다고 하는데 다른 엄마들도 애기 키우고 살아요. 뭔가 다른 특별한 걸 해야 되고. (키르기스스탄, 알리나(가명), 30세, 8년 거주, 현재 소규모 무역업)

“처음에 시작은 돈이 취지인데, 하다보니까 너무 돈에 치우치지 말자. 내 인생에 돈의 값어치를 따지는 건 좀 너무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내가 이 공간에서 이 지구 세계에서 살면서 내가 숨 쉬면서 살아 있는 동안에는 뭔가 일을 해야 하고 뭔가는 남을 위해서는 남겨주고 싶고. 그리고 또 내가 배워갖고 얻은 만큼 주변하고 나눠서 이 경험을 체험했다. 네가 불이익을 당하면 내가 이렇게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 그래갖고 제가 활동을 많이 범위 있게 했다는 거는 돈보다는 내가 많이 활동하면 그만큼 내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그 경험이거든요.” (대만, 왕하진(가명), 54세, 19년 거주¹⁰⁾, 현재 IT 방문지도사)

9) 서가혜는 1999년에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처음 왔다. 처음 작업장에서 이탈하여 미등록 상태로 식당일을 하다 남편을 만났으며, 2002년 결혼 수속을 위해 중국으로 돌아갔는데 미등록이었다는 이유로 2004년에 비자가 발급되었다.

10) 왕하진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아버지가 사업차 한국에 방문할 때 동행한 적이 있으며, 고등학교

본국 친정에 송금을 해야 하는 것도 여성이 일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당장에 결혼 과정에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시급히 돈을 벌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부정기적으로나마 자신이 번 돈을 보내 친정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이 경우 송금액은 남편의 소득이 아닌 본인의 소득에서 마련하는 모습을 보였다. 친정 방문에 필요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라고 일을 하는 이유를 밝히는 여성도 있었다.

[일을 계속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까요?] “일단 제가 친정 가족이 도와주고 싶어요. 우리 일곱 명이라서 내가 세 번째예요. 우리 동생은 네 명도 다 학교. 그 다음에 우리 아빠는 제가 어릴 일곱 살 때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엄마 혼자 우리 키웠잖아요. 우리 집도 없고요. 한, 전세 같은 경우 한 달 얼마 정도 냈고요. 그리고 동생도 다 학교 갔잖아요. 항상 뭐 조금씩 돈이나 필리핀에서 보내야 돼요. 안 보내면 어려울 것 같아요. [언니들이 있을 거잖아요. 언니나 오빠.] 언니, 우리 큰언니는 결혼했잖아요. 두 번째 언니도 결혼했고, 그다음에 제가 결혼했고, 나머지는 아직 안했고. 우리 큰언니는 지금 애도 다섯 명 있잖아요. 도와주고 싶어도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 언니는 애기 두 명 있잖아요. 지금 남편이랑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키워서 애기 두 명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힘들 것 같아요.” (필리핀, 브렌다(가명), 29세, 7년 거주, 현대 다문화가족센터 통·번역사)

[왜 본인이 이 일을 하고 있으세요? 남편도 하라고 해요? 아니면?] “아니요. 저는 그냥 일하고 싶어서. 집에서 공부도 잘 안 들어가고. 돈도 벌고 싶어서. 우리나라도 가고 싶어서. 돈 좀 벌고 만약에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어요.” (베트남, 김선희(가명), 25세, 5년 거주, 현재 공장노동)

눈에 띄는 것은 중국에서 온 여성은 다른 나라 출신 여성에 비해 ‘당연히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중국 여자들이 집에 있는 여자들이 아니다”라는 언급은 여성이 일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자연스러운 중국의 사회적 분위기의 반영된 것임을 아래에서 알 수 있다.

“일을 안 하면 인생이 너무 무의미하지 않을까요? 자부심도 없을 것 같고, 성취감도 없고. 이것을 함으로써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은 애를 키우다보니 일단은 애한테도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고. 집에 있는 것보다 저는 이게 애한테는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인 것도 있고. 중국 여성이 아마 그럴 거예요.” (중국(한국계 중국인), 손화화(가명), 41세, 19년 거주, 현재 관광가이드)

2학년 이후 어머니와 오빠들이 한국에 거주하게 되면서 이들을 방문하기 위해 몇 차례 한국에 온 적이 있다. 결혼을 위해 입국한 때는 1996년이다.

2. 임금노동 실태

이번 조사에서는 서비스직, 통·번역직 및 이중언어 관련 강사, 공장직, 사무관리직, 자영업, 학원강사, 부업 및 가내노동, 농림축산어업, 기타, 이렇게 9가지 직업군으로 나누어 면접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직종별로 구체적인 일의 내용,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임금(각종 수당 포함), 노동시간,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노동강도, 임금 격차나 임금체불, 고용주나 동료에 의한 차별, 성희롱·성폭력 등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이 절에서는 조사 대상 여성이 많이 포함된 공장직, 서비스직, 통·번역직 및 이중언어 관련 강사를 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노동실태를 살펴본다.

공장일을 하는 여성은 대부분 지인의 소개나 전단지를 통해 취업을 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고용지원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을 통해 취업을 한 경우는 드물었다.¹¹⁾ 여성은 대개 종사자 5~20명 규모의 소규모 공장(주로 봉제공장이나 전자조립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공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드물고 거의 구두로 임금과 노동시간 등을 정하고 일을 시작하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식품가공공장, 문구공장 등 몇 백 명 규모의 큰 공장에 국한되었는데, 이러한 공장에서는 법정 노동시간, 야근수당, 4대보험, 퇴직금 등 노동조건이 준수되는 편이다.

공장일을 하는 이주여성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장시간 노동을 호소하였다.¹²⁾ 주5일 근무가 일반적이기는 하나 토요일까지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9시간 노동하는 것이 기준이기는 했지만 잔업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심지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하는 여성도 있었다. 토요일에 일하는 경우 결코 노동시간이 짧지 않았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나 5시까지 일하였다. 앞서 면접참여자 통계에서 공장직 여성의 평균 임금이 120.3만 원이었는데, 이는 잔업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대개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임금 지급은 월급 형태를 취하지만 산정 방식은 일당제인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계절이나 경기에 따라 일거리가 적을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출근을 하지 않고 그만큼 임금이 삭감되었다. 공장 폐업으로 인한 실직이 많은 것도 여성이 소규모의 영세공장에서 주로 일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동안 여성이주자이 대개 4인 이하 작업장에서 일하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이 이보다 규모가 큰

11) 2009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구직 경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양인숙 외, 2010), 대중매체나 전단지(19.1%), 모국인 친구나 지인의 소개(18.0%), 한국인 친구나 지인의 소개(15.0%), 배우자의 가족이나 친척의 소개(12.6%), 본인의 가족이나 친척의 소개(11.2%), 고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의 소개(5.7%) 순으로, 결혼이주여성이 취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 2009년 실태조사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주당 근로시간은 41~70시간 36.2%, 71시간 이상(하루 10시간 이상) 23.2%였다. 즉, 1주일에 41시간 이상 일하는 여성이 전체의 60%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서비스종사자의 71시간 이상 일하는 비중이 37.5%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도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 아르바이트식으로 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길었다.

공장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공장직에서 눈에 띄는 것은 2,30대의 젊은 이주여성이 5,60대 선주민과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소규모 봉제공장이나 단순부품조립공장에서 그러했는데, 젊은 사람은 이주여성뿐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더 이상 2,30대 한국인 여성은 일하지 않는 영역의 노동력을 이주여성이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더 젊고 일을 더 잘하는 이주여성에게 일이 몰리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이주여성이 대우를 더 잘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로 인해 일을 그만두기도 하였다.

“같이 일한 분이 한 분은 다리가 불편하고, 한 분은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조금 일이 천천히 있어요. 저는 손이 좀 빠른 편이거든요. “좀 빨리빨리 해” 하다 보니 당연히 제가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일이. 그러니까 제가 힘든 거예요. [내가 그분들한테] “빨리빨리 하세요.”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한테만 계속 일 시키니까 힘들었어요. 일 너무 많이 시킨다고 사모님[사장이 남자인데 그 아내]한테,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2년, 3년 정도 다니다가 안 한다고, 그만 둔다 그랬어요.” (네팔, 맥(가명), 34세, 13년 거주, 현재 공장노동)

결혼이주여성이 종사하는 서비스직은 식당일, 호텔 청소, 마트 계산원, 판매원 등 그 범위가 넓고, 고용 형태도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까지 다양해서 이들의 노동 실태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미용사, 요양보호사 등 일부 자격증을 요구하는 일자리 외에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쉽게 취직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지 않더라도 노동력(history) 가운데 서비스직이 포함된 여성이 많았다.¹³⁾ 식당일은 여성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쉽게 진입하는 서비스직이었는데, 특히 다른 나라 출신 여성보다 이른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한국계 중국인 여성은 식당일부터 시작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이들이 한국어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이 분야에 한국계 중국인 여성이 많이 진출해 있으면서 쉽게 일자리를 소개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월급제로 식당일을 할 경우 노동시간이 10~12시간에 달했지만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에서 많게는 160만 원에 달했기 때문에 소득 측면에서 괜찮은 일자리로 인식되었다. 판매원은 일하는 곳에서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냐에 따라 한국어 구사 능력이나 특정한 기술에 대한 요구가 달라졌다. 한국어를 잘하는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의 특성을 살려 외국인 관광객 상대 면세점에서 많이 일하고 있었다. 상점에서 풀타임으로 고용되어 일하기도 하지만, 관광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맞추어 일당제 아르바이트 식으로도 일을 하고 있다. 중국 출신 왕쯔지에(가명, 중국, 37세, 12년 거주)는 중국어강사, 의료 통역, 다문화강사 등의 일을 하다가 작년부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부두에서 중국 크루즈 관광객 상대 기념품 판매일을 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아

13) 2장에서 면접참여자의 경제적 특성을 보면 현재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은 24명이지만, 서비스직에 종사한 적이 있는 여성은 43명이었다.

니고 연락이 오면 한 달에 네다섯 번, 6시간씩 일을 하면서 일당 5만 원을 받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통·번역직과 이중언어 관련 강사를 하나의 직업군으로 분류했다. 이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은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번역직과 이중언어 관련 강사, 여기에 더해 다문화강사를 연속선상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 직종에서 일하는 면접참여자는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이주여성지원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은 후 센터의 소개로 일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통·번역직의 경우 통·번역 업무를 하기 위해 채용되었을지라도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통역을 요청하는 이주여성을 상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는 임금 수준에 계약직이라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동향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며 일을 하고 있다. 여성이 한국어 구사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통·번역직과 이중언어 관련 강사, 다문화강사를 넘나들며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은 태국 출신의 한미희(가명, 38세, 15년 거주¹⁴⁾)의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한미희는 외국인복지센터에서 다문화강의와 통역 상담을 하다 태국식품회사와 이주노동자 상담콜센터에서 통역일을 했다. 그 후 경찰, 관광객 등을 상대로 프리랜서 통역을 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이중언어 강사를 권유받아 이 일을 하면서 다문화강사로도 활동했다. 최근에는 이주민 관련 재단에 취직하여 1주일에 3번은 다문화강사, 토요일에는 이중언어 강사로 일하고 있다. 이 직종은 9가지 직업군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정 노동시간이 준수되며 4대보험이 적용되는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조건을 충족시켰다. 그러나 정부지원기관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프로젝트성 사업이 많아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않는 이상 고용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또한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 반복되었다. 베트남 출신의 전희진(가명, 28세, 8년 거주)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일을 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족지원센터의 통합 때문에 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었다. 한국계 중국인 출신 유송하(가명, 46세, 10년 거주¹⁵⁾)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의 권유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언어영재교실 교사를 하게 되었는데, 언어영재교실 사업이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으로 바뀌면서 행정보조와 취업팀 팀장을 하고 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적 없다’라는 응답이 대다수였지만, 여전히 따돌림이나 편견, 차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여성이 있었다. 놀이공원에서 중국어 통·번역일을 하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 차명진(가명, 35세, 14년 거주)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면서도 한국인 직원이 인사를 받지 않거나 중국인 직원은 회식에 부르지 않고 개인별로 몇 만 원씩 쥐어주는 모습에 상당히 분노하였다. 부업을 하는데 ‘다문화’라고 돈을 다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외국 사람이 내 나라에 와

14) 한미희는 결혼입국 1년 전인 1999년에 선배들과 한국에 관광비자로 온 적이 있다.

15) 유금자는 2005년에 친척방문으로 한국에 처음 왔다. 2010년 한국 남성과 결혼하면서 결혼이민비자로 체류자격이 변경되었다.

서 사는데, 돈을 벌면 너 네 친정에 보내줄 것 아니냐. 이것 다 줄 수 없다”는 것이 한국인 사장이 돈을 떼먹으면서 내놓은 이유였다. 한국 국적을 취득했어도 돈을 버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착취를 당연시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더 힘든 일을 시키거나, 한국어와 한국의 노동문화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잘 못 하나’고 큰소리를 치는 경우도 있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여성이 소수인 일터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공장직의 경우 선주민 한국인 여성은 중장년이고 젊은 여성은 결혼이주여성뿐인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이 성희롱의 대상이 되기 쉬웠다. 이혼한 여성의 경우에는 성적 접근을 해도 되는 여성으로 간주되어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하기도 하였다. 베트남 출신 최미희(가명, 28세, 11년 거주, 현재 공장노동)는 이혼 후 거처가 불안정하여 자녀와 함께 기숙사에서 공장일을 하였다. 사장은 그녀가 이혼한 것을 알고 나서 “미희야, 지금 니가 이혼했으니까 니도 혼자 원정이[자녀 이름] 혼자 키워도 힘들어. 나랑 사귀하면 한 달에 10만 원 줄게. 아니면 내가 월급 한 5만 원 보태줄게”라며 원치 않는 성적 접근을 계속 시도하였고, 최미희는 이를 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이야기하였다. 식당 서비스직과 관광가이드에서도 성희롱이 일어나기 쉬웠는데, 식당에서는 주로 손님들이 성희롱을 하였고 고용주가 이를 제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관광가이드의 경우 서울 외 지역으로 관광을 안내할 때 경비 절감을 이유로 남성 버스기사와 여성 가이드를 한 방에 자게 하는 사례들이 보고되었는데, 여성은 이에 대해 인권 침해, 모멸감 등을 느꼈지만 여행업계의 경쟁 심화로 인해 이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면서 문제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다.

면접참여자는 사무직과 전문직 일부를 제외하고는 노동조건 개선, 경력 향상 등을 요구할 수 있기는커녕 승진 사다리가 아예 없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즉, 유리천장 자체를 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업장 규모가 작고 단순작업이 반복되는 공장직, 서비스직 외에도 통·번역직 및 이중언어 관련 강사, 학원강사 등의 직종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자영업자가 되는 것 정도인데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지 않은 여성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각종 지원기관에서 결혼이주여성 취·창업 지원 사업을 하고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를 통해 여성이 종사하는 직종에서 직업적 성공이 과연 무엇인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맞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3. 소득 관리

이번 조사는 결혼이주여성의 임금노동 경험이 주된 연구주제였지만 자신의 소득 및 가구 소득에 대한 관리 양상도 연구 질문에 포함시켰다. 자신의 소득에 대한 통제 행사가 노동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여성은 자신의 소득과 남편의 소득을 각자 관리하면서 생활비를 분담하여 지출하

고 있었다. 생활비 분담에 있어 성별 분업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남편의 소득에서는 집세, 대출금, 연금·보험, 공과금 등 가족 밖 공적 영역과 닿아 있는 항목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졌고, 여성의 소득은 식비, 의류비, 자녀 교육비 등 가족 내 소비를 위해 사용되었다. 여성은 자신의 소득에서의 지출을 ‘아이들 먹고 싶은 것 사주는 데 쓴다’라고 하며 이를 공식적인 생활비에 포함되지 않는 일종의 ‘덤’과 같은 지출로 간주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와 같은 지출 분담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비 분담은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여성의 기여를 비가시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선생님 월급 받으시면 월급은 선생님 마음대로 써요? 아니면 선생님 남편이 관리해요?] “월급은 그것은 우리 남편이랑 문제없어요. 내가 돈 버니까 내가 쓰고 아니면 내가 쓰고 싶은 거 사면 되잖아요. 근데 생활비도 좀 제가 조금 써요, 뭐 먹는 거.” [그러면 선생님 월급은 어떤 데 써요?] “일단 한 조금은 필리핀 보내고, 그 다음 제가 조금씩 통장에서 조금씩 있고. 저축, 많이 안 해요, 10만 원 정도. 한 달에 나머지는 내가 뭐 갖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옷이나 얘기 옷이나, 그 다음에 30만 원 정도 우리 생활 먹는 거.” (필리핀, 브렌다(가명), 29세, 7년 거주, 현대 다문화가족센터 통·번역사)

본인이 가구 소득을 모두 관리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여성도 있었지만, 남편보다 더 강한 생활력으로 가계를 꾸려가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다. 한국계 중국인 출신 차명진은 무역방 문비자로 한국에 온 후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다 남편을 만났고, 현재는 놀이공원 통·번역, 병원 통역, 식당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 남편이 농산물도매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기는 하지만 도매업의 특성상 돈이 들고나가는 것이 심해 차명진이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자녀를 위해 돈을 모을 뿐 아니라 세 가지 일을 하면서 각기 다른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가진 중국인을 만나면서 자신의 가치 역시 이들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느끼며 일하는 데에서 즐거움을 얻고 있다. 그녀는 끊임없이 일을 하는 도중에 집을 사고 세탁소를 운영하였다. 부동산을 통해 집을 알아보는 것에서부터 인테리어 꾸미는 것까지 모두 본인이 도맡아 하였으며, 세탁소 위치를 정하고 본사와 계약하고 운영하는 것 역시 모두 본인 몫이었다. 이 과정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에는 중국에 있는 가족과 한국에 나와 있는 친척에게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당신이 돈을 빌려와라’라고도 해보지만 남편은 못한다고 발뺌하고 있다. 한국계 중국인 출신 손한화는 한국에 온 지 2개월 만에 식당 2년, 공장 4년을 다녔고 그 후 12년째 관광가이드를 해오고 있다. 그녀는 집을 구매할 때 집값의 80%를 본인이 충당할 만큼 경제적 기여도가 높고 가구 소득 관리도 책임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을 한국계 중국인 출신 이주여성의 “강한 생활력”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가구소득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를 힘들어하는 여성도 있었지만, 반대로 남편과 남편 가족이 여성이 가구소득을 관리하는 것을 미덥지 않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생활

비를 지출하면서 가게를 꾸려가는 것은 여성이고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을 기대하면서도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신뢰는 보내지 않는 것이다. 한국계 중국인 출신 김연화(가명, 49세, 13년 거주, 마트에서 일하다가 현재 아파서 쉬는 중, 중졸, 재혼, 농사)는 처음에는 소득 관리를 자신이 했지만, 남편이 자신이 중국에서 데려온 아들을 위해 돈을 빼돌린다고 의심하면서 남편이 소득 관리를 하게 되었다. 베트남 출신 보선화의 경우에는 결혼 전부터 남편의 소득을 동서가 관리해왔는데, 결혼 후 2년이 지나도록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한 달에 고작 35만 원을 동서에게서 받고 자신이 공장일과 부업을 해서 번 20~30만 원을 더해 가게를 꾸려나갔다. 생활비가 모자랄 때에는 동서에게 찾아가 “주세요”라고 하며 몇 만 원씩 받아야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보선화는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다. 2년 전 본인이 소득을 관리하겠다고 하자 시동생이 폭력을 행사하였고 겨우 소득을 넘겨받고 보니 그동안 남아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었다. 2년 전부터 이삼백만 원에 달하는 소득을 직접 관리하고 저축도 하면서 미래에 대한 설계를 시작할 수 있었다. 캄보디아 출신 신미영(가명, 33세, 10년 거주, 현재 공장노동)은 남편과 함께 하우스농사를 지었는데, 소득은 모두 남편이 관리하였고 그녀는 소득의 규모를 전혀 알지 못했다. 시장에 갈 때에는 항상 남편과 동행했으며, 남편에게 거의 구걸하다시피 하여 돈 몇 만 원을 타서 쓸 수 있었다. 지난 해 남편이 질병으로 사망한 이후 남편 명의의 땅과 농기계는 모두 그녀가 상속하게 되었음에도 그녀가 자산 규모조차 제대로 모르고 관련 법규를 잘 모르는 상황을 틈타 남편의 가족이 땅과 농기계 임대료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몫으로 가로챘다. 보선화와 신미영 모두 남편이 문맹이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미 남편이 가족 내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었고, 남편과 여성과의 큰 연령차, 여성의 낮은 학력 등이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켰다.

한편 대다수의 여성이 친정 가족에게 송금을 하고 있었는데, 정기적으로 송금을 하기보다는 집 수리비나 병원비 등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몇 십 만 원씩 보냈고, 명절에 맞추어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송금은 대부분 남편과 상의하여 이루어졌다.

4. 한국어 자원과 노동시장 편입

1) 한국계 중국인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자원과 노동시장 편입

한국계 중국인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모두 한국어에 능숙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여성이 중국에서 조선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기본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들에게 한국어는 한국 노동시장에 빠르게 편입할 수 있는 자원으로 작동한다. 이들은 의사소통과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주여성보다 정보를 훨씬 더 많이 접하고 빠른 시일 내에 노동시장에 편입된다. 면접에 참여한 한국계 중국인 출신 이주여성 중 한국어를 몰랐던 두 명을 제외하고 모두 스스로의 힘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했다. 그러나 한국어 자원이 곧 좋은 일자리로의 편입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한국어 의사소통이 곧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와 노동시장에 대한 파악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직업

관련 교육과 트레이닝을 거친 후 직업을 구하다기보다는 일차적으로 전문적인 경력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식당 등 서비스업에 많이 편입된다.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 1998년 공장 들어가기 전 2년 동안 뭘 하셨어요?] “뭘 알바. 식당 알바도 해봤어요. … 서빙도 해봤죠. 그때 제일 자존심 상했죠. 나는 서빙하기 싫어서 주방에서 일하려고 했는데 안 써 주더라고요.” (한국계 중국인, 손한화(가명), 41세, 19년 거주, 현재 관광가이드)

소위 ‘강남’지역이나 ‘고급’식당의 구인란에는 ‘교포사절’이라는 문구가 종종 발견되는데,¹⁶⁾ 이는 식당 등 서비스업에서 에스니시티(ethnicity)에 따른 세분화된 위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계 중국인 출신 이주여성은 한국어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출신 이주여성보다 훨씬 더 빨리 노동시장에 유입되지만 하위의 서비스업에 우선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한국 선주민 여성과 한국계 중국인 출신 이주여성 사이에는 에스닉 유리벽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계 중국인 출신 이주여성은 향후에는 공장, 사무직, 보험설계사, 화장품 판매 개인사업자, 통·번역 프리랜서 등 개인 자영업과 유사한 직종으로 옮겨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직업은 사무직과 프리랜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에스닉 그룹을 주 고객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재미있는 거가 교포들이 할라면 시장이 좁아서 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찌 보면은 타겟을 한 거가 교포시장이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교포로서 한국시장에 들어가서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거는 불가능하겠단. 근데 우리 교포의 경우 아직은 간척지가 많잖아요. 개간도 안 된 데가 많으니까 이걸 제대로 알리고 제대로 보상 받을 사람 찾으면 교포한테도 도움이 되고 나한테도 득이 오겠구나 해서 이것을 타겟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한국계 중국인, 박화염(가명), 36세, 12년 거주¹⁷⁾, 현재 여행사 사장/보험설계사)

그런데 이 직업 역시 한국 보험설계사 자격증 취득,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설명 이해, 한국

16) 홀여직원/알바/180@/교포사절. 근무회사: 미네스시. 근무지역: 서울 강남구. 상세 모집내용: 역삼역 부근 미네스시에서 홀직원 및 알바 구함, 9:30~22:00 근무, 홍보조 알바, 11:00~15:00 근무, 월 180+@, 교포사절, 010-0000-0000. 행복한 날 되시고 많은 지원바랍니다.

(http://www.findjob.co.kr/job/DetailIndeed.asp?jobkey=ff6bb3b5ec2a854a&utm_campaign=SEO_NSYNDICATION&utm_source=NAVER)

17) 박화염은 중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2001년에 처음 C-3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그 후 회사일로 몇 차례 한국과 중국을 오갔다. 2011년 말 현재의 남편을 만났으며 결혼 후 중국에 거주하다 2003년에 결혼비자로 입국하였다.

여행지 정보 학습 등 한국어 자원을 기본 전제로 하지 않으면 종사하기 어려운 직업이기도 하다.

한편, 한국계 중국인 출신 이주여성은 한국어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정부지원기관을 이용할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한다. 이로 인해 한국어 교육과 더불어 진행되는 한국 요리, 자녀 교육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한국사회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하고 ‘주류사회’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거나 긴밀한 연결을 맺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출입국에서 결혼이민자네트워크라는 모임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여차여차해서 되면 아는 동생도 데려가면서 우리가 자주 어울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돌이켜 본다면요. 그리고 동포는 뭐가 미흡했냐 하면 언어가 통한다는 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외국에서 결혼으로 온 사람은 언어가 통하지 않고 그 생활이 각박하다보니까 혹사하다보니까 그분들은 많이 어울렸던 것 같아요. 교포들은 그 만큼 그게 단점이 됐던 게 그만큼 언어가 통했기 때문에 자기 취직 쪽으로 가서 자기 이로운 쪽으로 생각하다보니 요 부분의 기회를 놓쳐버렸던 것 같아요. 그것이 단지 내 개인의 기회였지, 동포 대상으로는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한국계 중국인, 박화영(가명), 36세, 12년 거주, 현재 여행사 사장/보험설계사)

결론적으로 한국계 중국인 출신 이주여성이 다른 나라 출신 이주여성보다 빨리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에는 한국어 능력이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들은 특히 서비스업계에서 자신이 한국인보다 하위에 존재하는 에스닉 위계 구조에 직면하며, 에스닉 그룹을 주 고객으로 하는 개인 사업 및 자영업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직업 역시 한국어 능력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2) 이중언어 직업의 명암¹⁸⁾

통·번역사, 이중언어 강사, 다문화 강사 등 이중언어를 강점으로 하는 직업은 결혼이주여성의 언어 및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새롭게 직업으로 창출되었다. 다문화 사업이 관주도로 이루어졌듯이 이 직업을 창출한 곳도, 결혼이주여성이 이 직업으로 주로 취업한 곳도 정부지원기관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사, 이중언어 강사, 다문화 강사가 대표적이고,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의 통·번역 상담인력, 이주노동자를 상담하는 외국인력지원센터나 외국인근로자센터의 통·번역 인력도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정부지원기관에서 일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4대보험이 가입되는 등 합법적인 노동조건이 갖춰

18) 이 절은 김경희·허영숙(2014),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를 중심으로 본 한국의 에스닉(ethnic) 노동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진 직업에 종사하는 거의 유일한 집단이기도 했다.

한국어를 능숙하게 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이중언어를 자원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왜 결혼이주여성이 외국인 노동자 통·번역 상담 인력으로 일하고 있을까? 그것은 결혼이주여성이 가족을 구성하여 정착할 수 있는 유일한 외국인 이주자 집단으로 취업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이중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한다 할지라도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와 있다면 취업 범위의 제한으로 통·번역사로 일할 수 없다. 한편 통·번역사나 이중언어 강사 등은 주로 이주여성 관련 기관에서 일하기 때문에 일하는 공간이 곧 지지 집단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가족의 동의를 얻기도 쉽다. (표면적으로는) 출·퇴근시간이 일정하고 잡무와 시간 외 근무가 많지 않다는 점도 여성과 그 가족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된다. 그렇다고 이 직업의 실제 노동조건이 좋은 것은 아니다.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들이 일하는 곳은 크게는 이주노동자 관련 기관과 다문화가족 관련 정부기관이나 이주여성 NGO, 이주노동자의 보험을 다루는 기업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서로 노동조건은 비슷하다. 2013년 기준, 전국 211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282명의 언어지원사가 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11개월의 단기 계약직이고, 임금은 월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다. 이는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일 조직으로는 가장 많은 통·번역 상담인력을 고용하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다누리콜센터)도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를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임금이 책정되고 있다.

이중언어 관련 직업을 가진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은 다양하지만 이 직업에는 주로 아시아 국가 출신 여성이 종사하고 있고 다문화 붐을 타고 단일 직업군으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형태를 띤다. 고용허가제 MOU 국가와 결혼이주여성의 주요 출신국이 상당 부분 겹치는데, 그것이 결혼이주여성이 이주노동자 상담 분야에서 통·번역사로 채용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통·번역 업무를 하는 결혼이주여성은 노동 과정에서 객관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과 이주여성이라는 정체성 간 경계에서 있다.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민에게 자신의 이주 경험과 언어 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중립적인 통역사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그들이 수행하는 통·번역 업무는 기계적인 통역을 넘어 이주민이라는 정체성에서 나오는 감정이입을 요구하며, 이로 인해 선주민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여성이 차별과 불신을 경험하기도 한다.

“저는 아직은 월급에 대해서는 생각은 안했어요. 왜냐면 외국에서 네팔 사람한테 조금 자기 말만 들어주는 사람 있어도 진짜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 얘기할 때 용기가 없으면 사람이 진짜 힘들어요. 어떤 때는 그 상대방이 기분 나빠서 우리한테 막 욕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울어요, 그때는. 우리는 그거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 처음엔 저도 조금 가슴이 좀 아프고. … 요즘에는 막 머리도 빠져 가지고 잠이 안 와요. 왜냐면 이런저런 문제는 좀 안 들으면 괜찮은데, 근데 어떤 때

는 남편이 나가라고 술 먹고 때려 엎고 그렇게 전화 오면 제가 아침까지 잠이 안와요. 왜냐면 그 동안도 남편이 막 때려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직접 갈 수도 없고.” (네딸, 프라티바(가명), 33세, 6년 거주,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조통번역사)

“그 처음에 제가 이주여성단체에 있을 때는 이제 일하면서 그 이주여성이 같은 입장 이잖아요. 우리가 안타깝고 뭐 이상한 남편도, 폭력 하는 남편도 있고, 뭐 욕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거기 하다보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거기 일하면서, 거 생전 안 걸리던 폐렴도 걸리고 위염도 걸리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직을 했어요.” (베트남, 홍안(가명), 28세, 11년 거주, 현재 무역회사 통역)

무엇보다도 한국 가족은 자신의 가족구성원인 이주여성과 통·번역사를 동일시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가족은 통·번역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선주민 상담자를 찾으면서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5. 노동력(labor history)을 통해 본 본국/한국 노동경험의 연결성

2장에서 보았듯이 면접참여자 대부분 본국 내에서 임금노동을 경험하였으며, 일부는 가족 내 무급노동경험을 갖고 있었다. 이들의 노동력(labor history)을 특별히 강조해서 보고자 하는 이유는 본국과 한국의 노동경험에서 어떤 방식의 단절, 편입, 연결이 발생하는지 그 맥락을 드러내어 이들을 단순히 가족 내에서 어머니, 며느리, 아내라는 성역할을 담당하는 여성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통해 이들을 단순히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노동경험을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1) 결혼이주여성의 노동력(labor history)이 갖는 특성

면접참여자 한국에 유입되는 시기와 출신국(민족)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의 본국/한국 노동력(labor history)을 보여주고 있는데, 2006년 전/후 입국이라는 변수와 한국계 중국인 출신/다른 국가 출신이라는 변수에 따라 가장 크게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아래 표에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2006년 전/후 입국에 따른 노동력(history)

장하 (2008년 입국)
(본국) 가이드 → (한국) 전업주부 → 지원기관 프로그램 → 중국어 강사 → 화장품 판매

에르덴 (2003년 입국)
(본국) 무역회사 직원, 통역 → (한국) 어학당/컴퓨터 교육(지원기관 프로그램 아님) → 회사 컴퓨터 작업 직원 → 선출직 공무원 → 대학원 진학 → 시민단체장

중국(한국계 중국인) 출신/다른 국가 출신에 따른 노동생애

박화염 (중국(한국계 중국인))
(중국) 화장품회사 직원 → 방송국 직원 → 무역회사 통역 → 프리랜서 통역 및 가이드 → (한국) 여행사 직원 → 여행사 운영 → 보험설계사 → 무역강좌 수강

한미희 (태국)
(태국) 대학생 3학년 → (한국) 전업주부 → 지원기관 프로그램 → 이중언어 강사/다문화강사 → 인력상담콜센터 상담사 → 프리랜서 통역 → 이중언어 강사

2006년은 한국 정부가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선포한 이래 정부 차원의 지원기관이 우후죽순 확충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후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이 통과되었고 현재 전국 각지에 200여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다. 이로 인해 2006년 전/후로 언제 입국했는지에 따라 여성의 노동경험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에 한국에 입국한 중국(한족) 출신 장하(가명, 35세, 6년 거주, 현재 중국어강사/화장품 방문판매)는 입국 후 바로 남편으로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등록을 하고 한국어 교육, 자녀 교육, 생활지도, 요리 프로그램, 난타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그녀는 이 가운데 한국어 교육과 자녀 교육 프로그램이 현재 중국어강사로 일하는데 적극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2006년에 입국한, 한국계 중국인 출신이지만 한국어를 몰랐던 채옥화(가명, 35세, 9년 거주, 현재 중국어학원 원장)는 지방정부기관의 편지를 받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서 한국어 교육을 받게 되면서 취업 준비를 하게 된다. 이렇듯 2006년 이후 한국 정부는 매우 적극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을 지원기관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해왔기에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이 통·번역사, 이중언어 강사, 다문화강사로 유도되는 취업 양상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반면 2003년에 한국에 입국한 몽골 출신 에르덴(가명, 37세, 12년 거주, 현재 시민단체장)은 당시 한국어 무료 교육을 제공하는 지원기관이 없었기에 자부담으로 대학교 어학당을 다녔고, 취업 교육을 받고 회사 직원으로 첫 임금노동을 시작하였다. 2006년 이후 출입국결혼이민자네트워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지원기관과 연결이 되긴 했지만 상술한 직종으로의 치우침 경향이 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한국계 중국인 출신인지 아닌지에 따라 여성의 노동경력 양상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계 중국인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이미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중국에서 다양한 노동을 경험하였는데, 자영업, 무역업, 사무직 등 전문직에 가까운 일을 한

경험이 많다. 그리고 한국에 입국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적고 한국에 이미 형성된 에스닉 커뮤니티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모집 공고를 보고 직접 지원해서 노동시장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노동경험 양상도 자영업이나 개인사업가, 무역업, 프리랜서 등으로 진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른 국가 출신 여성의 경우 본국에서 한국계 중국인 출신에 비해 비교적 단기간의 노동경험을 가지고 있고, 무급 가족노동, 공장, 서비스업에 종사했던 경우가 많으며, 거주 기간과 무관하게 지원기관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 모두 한국에 입국하면서 노동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1) 노동경력 단절과 젠더화된 하향유입

대부분의 면접참여자(한국 입국 전 종사하던 직업과는 사뭇 다른 직종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한국인 기혼여성(가명, 45세, 19년 거주, 현재 IT 방문지도사)은 한국에 들어온 후 임신·출산·양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느라 노동시장에 바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가정주부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여타의 현실적 상황이 가하는 제약으로 인해 이주여성은 한국 입국 전 종사했던 노동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인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였다가 양육 등 성역할 문제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면서 M자형의 노동생애를 보이듯이,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 들어온 후 임신·출산·양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느라 노동시장에 바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가정주부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여타의 현실적 상황이 가하는 제약으로 인해 이주여성은 한국 입국 전 종사했던 노동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대만에서 주유소 아르바이트, 여행사 가이드, 식당 관리직으로 여러 해 동안 일하고 돈을 꽤 많이 벌었던 왕하진(가명, 54세, 19년 거주, 현재 IT 방문지도사)은 한국에 와서 시댁 식구와의 갈등 속에서 전업주부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그녀는 대만에서의 경험을 살려 식당을 운영하거나 고급 식당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하지만 남편은 그것은 매우 천한 일이라고 하며 반대했다. 그녀 또한 남편 가족이 자신의 돈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판단하여 차라리 ‘돈 안 버는 주부’를 선택하고 자녀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남편이 생계부양자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잃었을 때에야 임금노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기혼여성과 다른 것은 임신·출산·양육 등 가족 내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 학습, 남편 가족 및 이웃 주민과의 관계 구성 등 한국사회 적응노동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주부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도 있다. 한국계 중국인 출신이지만 중국에서 한족 학교를 다녀 한국어를 구사할 줄 몰랐던 채옥화(가명, 35세, 9년 거주, 현재 중국어학원 원장)는 결혼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지 3개월 후 임신해서 첫째를 낳고 2년 후 둘째를 낳았으며, 둘째를 낳고 한 달 후에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임신·출산·육아를 하는 2년 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여 한국어 실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반면 전업주부로 살면서 한국어 학

습 시간을 확보할 수도 있지만, 자녀 양육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집중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현편 노동경력 단절 현상은 출신국에 따라 연령대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 한국계 중국인 출신의 경우 한국인 기혼여성과 비슷하게 30대에 노동경력 단절을 경험하지만, 다른 국가 출신 이주여성은 20대에 입국하기 때문에 20대에 이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계 중국인 출신의 경우에는 단절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한다.

또 다른 노동경력 단절 현상은 여성이 한국 입국 전 종사하던 직종을 이어가지 못하고 노동시장에서 다른 직종으로 하향편입 된다는 것이다. 한국인 기혼여성의 경우에도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할 때 대부분 이전에 종사하던 직종과는 다른 직종으로 하향편입 된다. 중국에서 간호사장을 했던 손한화(가명, 중국(한국계 중국인), 41세, 19년 거주, 현재 관광가이드), 중국에서 피부샵을 운영했던 김자순(가명, 중국(한국계 중국인), 44세, 12년 거주, 현재 화장품 판매), 중국에서 매점을 운영했던 유송하(가명, 중국(한국계 중국인), 46세, 10년 거주,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모두 한국에 와서 식당일부터 시작하였다. 중국에서 무역회사 통역 및 구매대행 업무를 하던 박화염은 한국에 와서 액세서리 장사부터 시작했다.

그런데 결혼이주여성이 기간의 단절이 거의 없이 한국에 입국한 지 몇 개월 만에 노동시장에 진입할 경우에도 본국에서 하던 일을 계속할 '상상'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에서 간호사장으로 전문직 일을 했던 손한화는 한국에 유입되어 식당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공장노동, 관광가이드 등의 직종에 종사했다. '왜 간호사 관련 직업을 찾아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간호사 직업이 지루했던 면도 있었지만 한국에 온 이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한국어 자원이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도 본국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다른 직종으로 진입하는 현상은 '왜 그런 상상조차 할 수 없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한다. 서구 백인 영어 사용 원어민이나 외국인 전문직의 경우 보통 본국 내에서의 노동경험이 매우 중요한 경력으로 간주되는 반면, 이주여성이 결혼을 매개로 한국에 편입되었을 때 그런 노동경험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가 있다.

일부 고위 전문직 이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노동이주는 이주자의 본국 노동경험이 무시된 채 보다 노동조건이 열악한 직종으로 하향편입 되는 양상을 보인다. 즉, 이주자들이 노동경험에 있어 하향평준화를 겪는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이주자들이 집단적으로 하향평준화를 겪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사회기제는 바로 비전문취업비자(E-9)와 같이 이주자를 특정 직종에 종사하도록 강요하는 이주노동자 정책이다. 그런데 결혼이주여성은 1997년까지는 한국 입국과 동시에 국민(시민권)의 자격을 부여받았다. 1998년 이후에는 한국에 거주한 지 2년이 경과해야 국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 역시 노동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하향평준화라기보다 젠더화된 하향편입이라고 할 수 있다. 젠더화된 하향편입 방식이 이들의 '상상력을 제한'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것이다.

한편 면접참여자 가운데 본국에서 귀금속 공장에서 일했던 카자흐스탄 출신 사비나(가명, 33세, 10년 거주, 현재 프리랜서 통·번역사)와 베트남 출신 흐영(가명, 34세, 9년 거주, 현재 공장노동)은 노동경력 단절을 경험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국의 귀금속 공장에서 해외로 기술자를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에 온 한국인 기술자를 알게 되어 결혼하게 되었는데, 한국 입국 후 곧바로 남편이 일하는 귀금속 공장에 취업할 수 있었다. 이 경우 한국어 자원은 취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이렇듯 면접참여자에게서 노동경력 단절 경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축적되어 온 경험이 한국 입국 후 노동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자.

2) 경험의 연속 및 영향

경험의 연속이라는 개념에서 경험은 단순히 본국에서 종사했던 직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와 차원이 아니라 노동계약, 비즈니스 전략, 인간관계 등 일을 하면서 겪은 포괄적인 경험을 말한다. 여성은 본국에서 일하면서 겪었던 이러한 경험과 감수성을 가지고 한국사회에 편입되는데, 이는 한국에서 일자리를 선택하고 일을 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카자흐스탄 출신 사비나(가명, 33세, 10년 거주, 현재 프리랜서 통·번역사)는 본국에서 판매원으로 일할 때 가게 주인이 계약서에 명시한 월급에서 돈을 빼돌리자 주인을 경찰에 고소하여 승소했던 경험이 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녀는 한국에 와서도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꼼꼼히 물어보고 휴대폰으로 찍어둔다. 인터뷰 동의서에 서명할 때에도 휴대폰으로 찍어 두었다. 중국에서 가게 운영으로 꽤 많은 돈을 번 경험이 있는 한국계 중국인 출신 김자순(가명, 44세, 12년 거주, 현재 화장품 판매)과 정숙자(가명, 34세, 8년 거주, 현재 화장품 판매)는 시급, 월급형의 일자리에 안주하기보다 늘 사업아이템을 찾고 구상하였고 현재 개인 사업 형식으로 화장품 판매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 한국어 실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지는 않았다. 김자순은 중국 조산족 자치주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한국어 소통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반면, 정숙자는 한국어 소통 능력이 매우 약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중국에서 가게를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피고용인 신분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개인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자 계속 시도했다. 가게를 운영해본 경험이 가장 많은 유송하(가명, 중국(한국계 중국인), 46세, 10년 거주,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는 이제 기회를 봐서 개인 사업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편 본국에서 보험설계사를 한 경험이 있는 중국 한족 출신 이연실(가명, 37세, 5년 거주, 현재 식당주방일)은 한국에 와서 남편의 외도로 어쩔 수 없이 공장에 나가 일을 해야만 하고 집세도 혼자 책임져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중국에서 보험설계사를 했던 경험에 비추어 한국에 오자마자 보험에 가입하였다. 네팔 출신 프라티바(가명, 33세, 6년 거주)는 한국에 오기 전 몰디브에서 해외이주노동을 한 경험이 있었다. 그녀는 몰디브에 이주노동자로 갔지만 현지 언어인 디베히어를 배워 공장 통·번역사로 전문직 경험을 했는데, 한국에 결혼비자로 입국한 후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 현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보조 통·번역사로 일하고 있다. 그녀는 몰디브에서의 경험이 지금 일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본국에서의 노동 경험 과정에서 축적되었던 경험이 한국에서의 직업 선택이나 의미 부여에 있어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술하듯, 결혼이주여성의 노동력(labor history) 양상은 이들이 한국 정부 주도의 다문화정책 지원이 시작된 2006년 전에 입국했는지 여부와 한국계 중국인 출신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은 한국인 기혼여성과 마찬가지로 육아 등 가족 내 성역할로 인해 노동경력 단절을 겪지만, 또한 이주자로서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한국어/한국사회 학습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이중, 삼중의 부담을 경험하고 있다. 한편 한국계 중국인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는 임신·출산·양육의 성역할 수행으로 인한 경력단절보다는 새로운 사회에 들어서면서 이전의 직업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상상력'에 제한을 받으면서 다른 직종에 하향편입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국에서 노동을 하면서 축적된 경험은 이들이 한국 내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선택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통합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들이 본국에서의 노동경험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가족구성원이 지지를 보내고 중앙정부/지역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IV. 경합하는 노동들

이번 실태조사는 이주여성의 임금노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조사를 하면서 이주여성의 삶은 임금노동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주여성의 임금노동은 가족구성원으로서 여성이 수행하는 돌봄/재생산 노동과 타국 출신으로서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수행하는 학습노동과의 경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주여성의 노동은 기존의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한 노동 개념, 혹은 무급 재생산노동까지 포함한 노동 개념을 넘어, 임금노동과 돌봄노동, 학습노동의 경합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1. 학습노동과 임금노동의 상호성

결혼이주여성은 국경을 넘어 새로운 사회문화에 직면하지만, 일차적으로 한국 가족에 편입되면서 어머니, 아내, 며느리의 성역할을 부여받기 때문에 우선 이에 상응하는 가족규범에 대한 학습노동을 요구받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은 한국어 소통 능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어 공부는 한국인 가족이나 결혼이주여성 모두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점점 더 이들이 취업에 한국어가 필수적인 것으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은 한국어/한국사회 학습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한국어/한국사회와 가족규범 학습노동은 이들의 임금노동 진출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가? 그리고 이러한 학습노동과 임금노동 사이에 존재하는 자원봉사활동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1) 한국어/한국사회 학습노동과 임금노동의 교차

한국어 자원이 있는 한국계 중국인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결혼이주 여성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학습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정부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어로 진행되는 자녀 교육, 요리 프로그램이 모두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중국 한족 출신인 장하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장하 씨가 한국에 와서 생활하거나 일자리를 얻는데 일을 하게 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어 배우고 있고 또 어린이양육과정을 배우고 있어요. 자격증 시험을 위해 공부하고 있어요. 향후 취업할 때 유용할 것 같아요. 여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취업할 때 도움이 되잖아요.” [어떤 자격증인데요?] “어린이양육과정. 신사동 종합복지관. 처음에 상담하

고, 테스트하고, 내가 어떤 방면의 일을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인지에 대해 상담해주고, 그 다음 교과목을 선택하게 하고 여기서는 학비를 제공해주는 거죠.” (중국(한족), 장하(가명), 35세, 7년 거주, 현재 중국어강사/화장품 방문판매)

이주여성들은 정부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학습 등의 프로그램에는 가족 내에서는 배울 수 없는 한국사회 관련 지식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수료증이나 자격증은 이들이 앞으로 취업하려고 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자격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취업 시 고려되는 것은 국가자격증이지 이런 단기 이수증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런 ‘자격증’을 따기 위한 학습노동이 의미가 있는 것은 정부가 창출하는 단기 계약직 일자리에 취업할 때 이것이 매우 중요한 참조사항이 되기 때문이다.

대만 출신 왕하진(가명), 54세, 19년 거주)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왔었고 어머니도 한국에서 식당을 하게 되면서 한국어 실력이 비교적 좋았다. 그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대상 한국어 방문지도교사를 하고 싶었으나 관련 자격증이 아무 것도 없어서 탈락하였다. 이후 한국정보진흥원에서 3개월 과정의 IT 교육을 이수하고 현재 IT 방문지도교사 일을 하고 있다. 1년에 9개월 계약직이지만 3년 동안 지속해오고 있다. 태국 출신 한미희(가명, 38세, 15년 거주)는 2000년에 입국했지만 전업주부로서 아이 두 명을 낳아 기르다가 막내가 네 살이 된 2007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알게 되면서 한국어, 요리, 자녀 교육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를 통해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을 많이 하게 되었고 지금은 시간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이중언어 강사, 통·번역사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이주여성들은 한국어 학습노동을 통해 한국 가족이나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상식’을 접하고 한국인 선주민 및 다른 이주여성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노동시장 진출을 준비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주여성 내부에서 비교적 전망되는 직업인 초중고교 이중언어 강사, 다문화강사, 이주자 지원기관 내 통·번역사, 상담사 등은 높은 수준의 한국어 실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들은 끊임없이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한국어 학습노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취직하게 되는 정부 제공 일자리는 대부분 월수입 40~100만 원 정도의 단기 계약직일 뿐만 아니라 계약 여부가 매년 정부 프로젝트 사업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매우 불안정한 자리이다.

그런데 상술한 한국어 학습노동은 여성이 현재 혼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내에 위치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기회이자 노동이기도 하다. 이혼한 경우 생계부양 문제, 주위 시선의 문제 등으로 여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관 등 지원기관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지원기관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한족 출신인 이연실(가명, 37세, 5년 거주, 현재 식당주방일)은 결혼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처음부터 별거 상태에서 본인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공장 내에는 중국인 노동자가 절대다수였기에 한국어를

몰라도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녀는 생계부양 문제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고 있었고, 알게 된 후에도 이혼한 상태로 어떻게 가겠냐며 센터에 가기를 꺼려했다. 그녀는 현재 체류비자 문제 때문에 잠시 식당 종업원 일을 하고 있으나, 향후 공장에서 일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싶어 했다. 한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여부를 막론하고 지원기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2) 한국 가족규범 학습노동에 따른 갈등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가족에 편입되면서 가족구성원은 서로 적응하고 변화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렇다면 한국 가족규범의 재구성과 결혼이주여성의 임금노동 참여는 어떤 관련을 갖는가?

결혼이주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에는 가족 구성원의 지지와 지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의 지지와 지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던 인식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을 의미한다. 이는 곧 이주여성이 일방적으로 한국 가족규범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가족이 새로운 가족규범 학습노동을 하면서 가족생활을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계 중국인 출신인 박화염(가명, 36세, 12년 거주, 현재 여행사 사장/보험설계사)은 중국에서 한국인 남편을 만나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한국에 입국하였는데, 남편과 시부모 모두 그녀가 일하는 것에 매우 협조적이었다. 특히 양육노동과 가사노동은 시부모가 상당 부분 담당해주었다. 그녀는 시부모가 “속옷까지 빨아준다”며 “이런 한국인 시부모가 어디에 있겠나” 라고 했다. 그녀는 남편이 적극적으로 내조하겠다는 말을 한다면서 “기뻐야 할지 슬퍼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농담 삼아 했다. 손한화(중국(한국계 중국인), 41세, 19년 거주, 현재 관광가이드)도 시부모를 모시고 있지 않으면서 남편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에 힘입어 임금노동을 할 수 있었다. 한국계 중국인 출신인 채옥화(35세, 9년 거주, 현재 중국 여학원 원장)의 경우 본인은 중국어 학원 원장을 하고 남편이 회계직을 맡으면서 보조 역할을 해주고 있다. 세 사례 모두 여성의 월급이 남편보다 훨씬 많다는 점이 이와 같은 상황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으나, 이보다는 공통적으로 한국인 가족이 새로운 가족규범 학습노동을 실천함으로써 화목하고 원만한 가족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인 가족의 이러한 변화는 이주여성이 임금노동 능력을 보다 잘 발휘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은 한국가족에 적응하기 위한 가족규범 학습노동, 즉 성역할에 대한 학습노동을 일방적으로 요구받고 있다. 한국계를 제외한 결혼이주여성은 가족규범 학습노동뿐 아니라 한국어 학습노동까지 해야 한다는 점이 과부하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한국어 소통 능력이 좋을 뿐 아니라 남녀평등적 이념이 비교적 많이 관철되고 여성이 일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중국에서 온 한국계 중국인 출신 여성의 경우는 가부장적인 성역할에 대한 학습노동을 한국어 학습보다 큰 압력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부담은 결국 가족의 해체를 야기하기도 한다. 한국계 중국인 출신 김자순은 남편 가족

이 며느리 역할, 아내 역할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인해 가출을 했고, 결국 몇 년 후 이혼까지 하게 된다. 그녀가 가출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시아버지가 지나치게 한국식 예법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가부장적이다 못해 그런 집이 없어. 하여튼 여기 생활도 적응하고, 뭐 살림도 배우고 3개월 만에 결혼시켜주니까 결혼하고서 이제 그 문제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하나부터 열까지 안 맞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사사건건 간섭을 하면 남자가 못 살아요, 여자가. 그런데 신랑 하나가 간섭하는 건 괜찮은데 시아버지가 간섭하는 건 못살아. 그리고 어찌다가 있잖아, 밥해놓고 어디 나가도 시아버지가 밥술 뚜껑을 못 따요. 돌려서 따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떠서 바쳐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하나구. 안 해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거 하게 생겼고 너는 용돈을 안 주고 생활비는 안 주고 내 생활이 없는 거야.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게 결혼이 잘못된 거야. 밥 시중만 하고 식모인 거야, 말 그대로. 식모가 필요한 거야, 이 사람은. 애 낳는 여자가 필요한 거고. 오, 이거 아니구나. 보따리 싸들고 확 도망갔어.” (중국(한국계 중국인), 김자순(가명), 44세, 12년 거주, 현재 화장품 판매)

김자순은 이혼을 하면서 아이는 전 남편에게 맡기고 몇 년 동안 자립 기반을 마련한 후에 다시 아이를 데려올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그녀가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볼 때 한국식 가족규범 학습노동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인데, 이는 ‘내 생활’이 없어지고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삶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녀가 가출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자영업을 하면서 쌓아온 사업 경험과 한국어 자원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집에서 나오자마자 식당일, 옷가게 판매원, 화장품 방문판매 등을 하였고, 현재는 화장품 개인사업을 통해 돈을 벌고 있다.

상술하듯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어/한국사회, 한국 가족규범에 대한 학습노동을 요구받는다. 한국어/한국사회 학습노동은 한국 가족과 이주여성 본인 모두 향후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반면, 한국 가족규범 학습노동은 한국가족 구성원이 협조적이고 실천적일수록 이주여성이 임금노동에 참여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자원봉사활동: 학습노동과 임금노동 사이

결혼이주여성을 면접하면서 접하게 된 놀라운 사실은 정부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여성일수록 자원봉사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설령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여성은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찾아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결혼이주여성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은 지원기관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원기관에서는 무료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권유하고 있었고, 여성 역시 이것을 인턴 개념으로 받

아들여 정식 취업을 위한 준비활동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부 다 끝낸 후에 봉사활동에 참여해야 돼요. 저는 이런 프로그램에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비가 면제되니까 학비부담이 없구요. 그리고 향후 교학 이 쪽으로 발전하고 싶다면 봉사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이 봉사하고 봉사하면서 경험을 축적해나갈 수 있으니까 이후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중국(한족), 장하(가명), 35세, 7년 거주, 현재 중국여강사/화장품 방문판매)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기관에서는 결혼이민자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이들에게 출입국 방문자를 위한 안내 등 자원봉사활동을 권유하고 있었다. 관련 기관에서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정도의 교통비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 가운데 출퇴근식이 아닌 시간제 노동을 하고 있거나 전업주부인 여성이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에 많이 유입되고 있다. 여성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정부기관과의 연결을 돈독히 하고,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회적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 현재 결혼이주여성이 공적 영역에서 한국어를 기본으로 하여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각 나라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원봉사활동이 기본적인 전제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면접참여자 A는 이구동성으로 자원봉사활동은 필수적인 것이고, 이러한 활동이 단순히 남을 위한 것이기 보다 자신의 삶을 충만히 하고 자신을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게끔 하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자원봉사활동이 결혼이주여성만 단지 수혜의 대상인 것이 아니라 이들 역시 남을 도울 수 있는 주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표징으로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혼이주여성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한국사회의 구성원권을 획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만 출신 왕하진은 전업주부로 살면서 남편과의 불화로 우울증 증증에까지 이르렀는데 의사로부터 자원봉사활동을 권유받고 이 활동을 하면서 점차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검사하니까 우울증 증증이 나왔어요. 보건소에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까요?” “선생님 뭐 잘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을 잘하는데 주부로서 할 일이 없어요.” 그랬더니 “봉사를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더라구요. 봉사라는 게 자체를 나 몰랐어, 뭔지를. 남을 위해 베푸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 도와주는 것도 봉사예요 그러더라구. … 서대문구 정보도서관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거기서 자원봉사 다녔는데, 그때 모이던 엄마들하고 지금도 같이 모이거든요. 의리가 돈독하고 우리 남편 돌아갈 때 다 와서 되게 친해요.” (대만, 왕하진(가명), 54세, 19년 거주, 현재 IT 방문지도사)

한편 자원봉사활동이 상술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을지라도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전업주부나 시간제 노동을 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고, 직장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는 여성들은 기부식 봉사활동을 하거나 비영리단체에 소속되어 단체 활동에 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2. 임금노동과 돌봄노동 간 갈등

1) 임금노동과 돌봄노동 사이에서 줄타기

결혼이주여성은 이주노동자와 달리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가사 및 양육노동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을 병행하는 것을 일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였다. 면접참여자의 막내자녀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3~7세가 48.3%, 8~13세 29.2%로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이 전체의 77.5%를 차지하였는데,¹⁹⁾ 초등학생 이하의 아이들이 보호자의 손길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임금노동과 돌봄노동 간 갈등이 여성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지 짐작할 수 있다.

여성이 돌봄노동을 거의 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노동을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일자리를 찾을 때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임금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돌봄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 대신 조건이 뒤쳐지더라도 가급적 돌봄노동을 하는 데 피해를 주지 않는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시간제 노동이나 아르바이트식 노동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돌봄노동과 병행 가능한 일자리를 찾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은 자신의 출퇴근 시간과 자녀의 어린이집 혹은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을 맞출 수 있는가 여부와 집에서 직장까지의 거리이다. 대개 출근 시간은 문제되지 않으나, 퇴근 시간보다 자녀의 하교 시간이 더 이른 경우 대부분 자녀를 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 학원 등을 ‘뺑뺑이’ 돌리면서 아이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고 있으며, 수시로 전화 연락을 하면서 자녀가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는 육아, 가사 등의 가정 책임과 이로 인해 근거리 지역에서 취업해야 한다는 선주민 경력단절여성의 노동경험과 동일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주민 여성보다 친정의 도움을 덜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인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육아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더 클 수 있다(양인숙 외, 2010).

“지금의 제, 저의 상황에 맞는 것은 지금 여기가 맞아요. 왜냐하면 막내가 좀 치료 다녀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리니까. 학교도 여기 가깝고.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갈 수도 있으니까. 또 여기 선생님들이, 그, 이사님들 많이, 각자의, 그, 뭐야, 생활이나 가정 상황도 이해하고 계셔가지고, 좀 편해요.” (일본, 오카자키 토모코(가명), 46세, 18년 거주, 현재 아르바이트 식으로 휴폐션 자수)

19) 이는 2005년 이후 한국에 유입되는 결혼이주여성의 수가 급증한 것과 관련이 있다.

특히 잔업이나 휴일 근무가 많은 공장직의 경우 비록 월급이 적더라도 자녀의 등하교 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맞추고 가급적 휴일 근무가 없는 공장을 찾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 일하는 공장은 대부분 (잔업 없이도) 7시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아 이것이 쉽지만은 않다. 인도네시아 출신이다(가명, 45세, 19년 거주²⁰, 현재 공장노동)는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 동안 잔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회사가 배려해주어 인쇄공장을 다닐 수 있었는데, 관리자가 바뀌면서 잔업을 하라고 해서 그만두었다. 이 공장은 9시부터 6시까지가 정규 노동시간이지만 11시까지 잔업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필리핀에서 온 마리사(가명, 38세, 16년 거주, 현재 공장노동)는 스티커 붙이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말, 휴일 근무를 하지 못해서 특근수당은 받지 못하지만 회사에서 자신의 사정을 이해해주어서 계속 일하고 있다.

“근데, 둘째 애보다 큰애 어렸을 땐 공부 더 잘 해요. 둘째 애 1학년 때, 다 ‘보통’이래요. ‘잘함’, 조금이라도, 뭐, 뭐, ‘노력 요함’이 없는데, 그냥 ‘보통’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큰애는, 1학년은, ‘보통’ 없어요. 다 ‘잘함’, ‘매우 잘함.’ 2학년은 ‘보통’ 하나만. 근데 바로 3학년 2학기, 하아~, 어, 다 떨어졌어요. [면접자: 큰애도 지금 걱정이고, 둘째 애도 형보다 못하니까 걱정이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직장을, 옮겨야겠다고 생각] 알아보고 그랬는데, 쯤, 아, 모르겠어요. 안 된 것 같아요. 그 공장, 그, 일이, 너무 어려워요. 그 원하는 거. 시간이 쯤, 원하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베트남, 호영(가명), 34세, 9년 거주, 현재 공장노동)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 선주민 여성에 비해 남성중심적 가족 구도에 저항할 수 있는 자원을 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임금노동 참여는 개인이 가진 인적 자본보다도 남편이나 남편 가족의 이해와 지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필리핀에서 온 브렌다(가명, 29세, 7년 거주)는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일을 하고 있는데, 같은 필리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으며 시부모도 며느리가 공부 많이 하고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녀가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남편은 본인은 5시 반이면 집에 오는데 그녀는 6시 반이 지나서야 집에 와서 그 사이에 밥을 못 먹는다고 그녀가 일하는 것을 싫어하고 있다. 반면 남편의 적극적인 지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노동시장에서의 경력 형성 및 상향 이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몽골 출신의 에르덴(가명, 37세, 12년 거주, 현재 시민단체장)은 한국에 오기 전 몽골과 중국을 오가며 무역업에 종사하는 등 노동경험이 풍부하여 한국에 입국하여서도 바로 일을 하고자 하였지만, 남편은 한국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어학당에 다니게 했다. 그녀가 임금노동을

20) 인다는 1996년에 산업연수생으로 처음 한국에 입국했다. 2년 동안 산업연수생으로 일한 후 인도네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98년에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왔으며, 2년 후 미등록 상태가 되었다. 현재의 남편은 두 번째로 산업연수생으로 왔던 공장에서 알게 되었고 2001년에 혼인신고를 하였다. 인다는 2002년 월드컵에 맞물려 이루어진 미등록 이주자 합법화 정책을 통해 미등록 상태에서 벗어났으며, 처음에 F-1비자로 있다가 2012년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시작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게 되자 남편은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냈으며,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하여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나가게 되자 서류 준비, 스타일링 등에 대해 조언하면서 그녀가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결혼이주여성이 일차적으로 가족의 생물학적 재생산을 기대 받는 상황에서 이들이 이주 후 짧은 시간 안에 임신과 출산의 경험을 하게 되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 가운데 첫째 아이의 임신 전에 임신을 기획하거나 피임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낯선 환경에 채 적응하기도 전에 임신을 하게 된 경우 임금노동 참여는 나중으로 미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베트남에서 온 이연주(가명, 27세, 6년 거주, 현재 피부관리샵 운영)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하는 과정에서 3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어 한국에 와서 바로 돈을 벌어 송금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입국 후 한 달 만에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출산 6개월 후 친청 어머니가 한국에 와서 거들어준 후에야 일을 할 수 있었다.

한편 결혼이주여성의 돌봄노동은 가사노동과 양육노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 가족을 보살피는 것까지도 포함하였다. 시부모와 동거하거나 시부모 댁 혹은 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시부모를 보살폈으며, 시부모뿐 아니라 암 투병 중인 시동생과 동거하거나 병원에 입원한 시이모를 방문하면서 병수발을 하기도 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이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을 모두 해야 하는 상황은 그 자체로 힘든 일이지만, 가족 내 돌봄노동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따라 노동시장 진출입을 거듭하면서 경력형성과 이를 통한 노동시장 내 상향 이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도 문제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과 자녀를 챙겨 보낸 후 출근하여 일을 하고 퇴근 후 다시 가사노동과 양육노동을 하다보면 하루는 정신없이 지나가 버리고, 주말에 시간이 난다 하더라도 심신의 피로를 해소하고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어느새 다시 한 주가 시작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거나 기술을 배우는 것은 늘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일로 남아 있다. 단속(斷續)적인 노동 경험이 반복되면서 일종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은 태국에서 온 최미연(가명, 38세, 14년 거주, 현재 공장노동)의 사례에서 생생하게 나타난다. 최미연은 한국 입국 후 이불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일의 양에 비해 임금이 적어 그만두었다. 그 후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다가 자녀의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플라스틱 공장에 다니는 한편 양말접기 부업을 하였고 액세서리 공장으로 이직했다.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시동생의 병수발을 하기 위해 다시 일을 그만두었고 어느 정도 이 상황이 해결되고 나자 커튼 샘플 제작 공장에 다니는 한편 색종이 넣기 부업을 하였다. 철제테이블 제작 공장을 다니다 한 달 동안 친정에 다녀오기 위해 일을 그만두었으며 다시금 자녀의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스타킹 공장, 마스크 팩 공장에 다니고 있다.

2) 한국/본국 가족구성원의 돌봄노동 참여

이번 조사는 현재 임금노동을 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혼(15건), 사별(3건) 가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맞벌이 가구(82건)라고 할 수 있는데, 남편이 돌봄노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또한 돌봄노동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가사노동의 경우 공평하게 분담되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나 쓰레기 버리기 등을 ‘도와주는’ 데 그쳤다. 남편의 양육, 돌봄 노동 참여는 자녀나 부모를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는 일상적인 노동이 아니라 자녀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거나 ‘놀아주는’ 것으로 제 할 바를 다 했다고 여기곤 했다. 베트남에서 온 호영은 남편이 아들과 놀아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학원비도 대지 않으려 해서 이 문제로 남편과 자주 다투으며 최근에는 남편이 육아에 조금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온 최미희(가명, 28세, 11년 거주, 현재 공장노동)는 이혼 후 양육권을 전 남편이 가지게 됐지만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1년은 본인이 키우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남편이 데려가기로 했다. 그러나 아이가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여 전 남편의 집 근처로 가서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데, 공장에서 잔업까지 하게 되면 아이가 먼저 집에 돌아오게 되어 그 시간 동안 전 남편의 집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있다. 최미희는 남편이 양육비를 주기는커녕 전 남편 집에 아이가 있는 동안 저녁 8시가 되도록 아이에게 저녁 한 번 챙겨주지 않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남편의 돌봄노동 회피를 가부장적 가족 관계 혹은 강고한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의 영향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남편이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면서 가족생활 자체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남편이 더 짧은 시간 일하거나 소득이 더 낮은 경우에도 돌봄노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돌봄노동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한 면접참여자는 집에서의 남편의 모습을 “시체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 경우 여성은 자신 역시 임금노동에 참여하면서 가족 유지 역할을 모두 떠맡고 있다.

남편 가족의 돌봄노동 참여 양상은 일률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남편 가족이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여성의 임금노동과 돌봄노동 간의 갈등과 부담이 줄어들고 가족생활 역시 원만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돌봄노동 병행 가능성은 임금노동을 기획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인데, 특히 다른 사람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임신과 출산, 초기 양육 과정은 단신으로 이주해온 결혼이주 여성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과정을 돌봐줄 공적·사적 지지망을 갖고 있지 못한 데에서 오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남편이나 남편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본국 가족, 특히 친정어머니의 초청을 통해서이다. 특히 출산 전후의 시기에는 거의 대부분 친정어머니가 한국에서 함께 살면서 도움을 주었다. 한국 정부의 출입국 정책은 배우자 부모초청비자의 사유로 산후조리를 포함시키고 길게는 4년이 넘어서까지 친정부의 체류를 허가해줌으로써 친정 가족의 재생산노동 수급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장려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돌봄노동 수행에 있어 한국과 본국을 아우르는 초국적 돌봄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기존 연구(임안나, 2005; 이선형, 2013)에서 지적된 바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그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당장에 부부가 함께 돈을 벌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힘들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친정에 보내기도 하고,²¹⁾ 엄마와 아이, 친정어머니가 본국과 한국을 오가며 돌봄노동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베트남 출신 호영은 호치민에 있는 귀금속공장에서 일하던 도중 기술자로 온 남편을 만나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첫째 아이를 베트남에서 출산하였다. 그녀는 아이가 돌이 지난 후 아이는 베트남에 남겨둔 채 한국에 왔고, 3개월 후 베트남에 돌아가서 아이와 친정어머니와 함께 다시 한국에 왔다. 호영이 일을 하는 동안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돌보아주었다. 두 살 터울의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서는 3개월 후 친정어머니와 두 아이와 함께 넷이서 베트남으로 갔다가 두 달 후 우선 첫째 아이만 한국에 데리고 왔고, 6개월 후 다시 베트남에 가서 둘째 아이를 데려 왔다. 돌봄 네트워크는 시댁과 친정 가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주민 커뮤니티로까지 확장되기도 한다. 한 동네에 사는 결혼이주여성이 늘어나면서 일을 하지 않는 여성이 자신의 아이와 함께 다른 여성의 자녀도 돌보면서 임금노동과의 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백을 메우기도 한다. 네팔 출신 막마(34세, 13년 거주, 현재 공장노동)의 경우 공장에서 토요일이나 휴일까지 일하면서 이때 어떻게 유치원에 가지 않는 아이를 돌볼 것인가가 골칫거리였는데, 같은 동네에 사는 필리핀 친구가 아이를 함께 돌봐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였고 이에 대해 한 달에 20만 원씩 주었다.

3. 임금노동, 돌봄노동, 학습노동의 경합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노동, 가족 재생산을 위한 돌봄노동, 소득 창출을 위한 임금노동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집약적으로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 아침 7시 이전에 일어나서 남편 출근시키고 자녀들 씻기고 먹이고 입혀서 학교에 보내고 집안 정리한 후 자신도 준비해서 출근하고, 9시부터 6시 혹은 7시까지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과 한두 차례 있는 10여 분의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임금노동을 하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저녁을 준비해서 가족을 먹인 후 가사노동을 하고 자녀 숙제 돌봐주고 씻겨서 재우고, 이런 숨 가쁜 매일이 반복되는 것이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다. 더욱이 한국어 학습에 대한 부담을 강하게 느끼고 있지만 일이 너무 힘들고 하루 일정이 너무나 빡빡해서 공부할 시간을 내기 힘들 뿐더러 어떤 경우에는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조차 내기 어려웠다.

학습노동과 돌봄노동, 임금노동의 경합 패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주 후 초기에 한국 사회와의 접점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 이후 노동 경력이 구분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21)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인다의 사례인데, 자녀를 친정어머니에게 보낸 지 5개월 후에 '한국 아이는 한국에서 커야 한다'며 남편의 형이 아이를 데려다 다섯 살 때까지 키웠다. 아이가 큰아버지 집에서 크는 동안 린다는 잔업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여 남편과 함께 돈을 모았고, 자녀와 함께 살게 되자 출퇴근 시간을 아이의 등학교 시간과 맞출 수 있는 공장으로 옮겼다.

점이다. 빠른 임신, 남편의 권유와 같은 이유로 임금노동을 하기 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같은 이주여성지원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접한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학습 외에도 한국사회에 대해 배우고 향후 취업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이 경우 향후 임금노동 참여는 지원기관에서 제공되는 각종 취·창업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직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며, 이중언어 강사, 통·번역사, 다문화 강사 등 이른바 ‘이주여성 적합 직종’이 대표적이다. 또한 향후 이직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답변으로 나온 피부관리, 네일아트, 미용, 바리스타 등도 지원기관에서 중점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직종이다. 베트남 출신 이연주는 중개업체에 진 빚 때문에 바로 돈을 벌 생각이었지만 한국에 온 지 한 달 만에 임신을 하면서 이를 포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였다. 이를 통해 출산 후 다른 외국인지원기관에서 통역일을 하게 되었으며, 동향 출신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만족해했다.

“바로 임신했어요. 한 달 안 돼서 임신했어요. 그때는 사실 제가 애기 낳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때 제가 한국말 몰랐잖아요. 또 애기 낳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 하지만 임신했으니까, 방법 없어서, 그냥 애기 낳았죠. 근데 애기 나면서 그냥 상황, 이렇게 임신했으니까 애기 다음에, 애기 낳으면 엄마 이야기 못 하니까 좀 안 되고. 그니까 임신 있는 동안에 열심히 한국말 배웠어요. 교육도 받고. 그리고 그때 선생님들이 집에서 또 교육 있잖아요. 우리 집에 와주고, 그러면 교육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열심히 또 배웠어요. 그때. … 그렇게 열심히 배워서, 애기 6개월 되는 거, 우리 엄마 초청, 친정 엄마, 초청하고 우리 엄마 왔어요. 그니까 우리 엄마 왔으니까 도와주고, 제가 애기 많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우리 친정 엄마 옆에 있으니까 다 도와줘서 그냥 제가 다른 교육도 받았어요. 그때는, 그냥, 소장님,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장님이, 여기, 저기 가서 한국말도 더 배우고 그러고 일하면서 한국말도 더 배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다른 친구는 나보다 한국말 더 안 되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도와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한 달에 3만 원이 벌었어요.” (베트남, 이연주(가명), 27세, 6년 거주, 현재 피부관리샵 운영)

현재 글로벌센터에서 베트남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안미혜(가명, 29세, 9년 거주)는 결혼으로 입국한 후 일을 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이를 만류하고 한국어를 배우도록 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공장일이나 식당 설거지일밖에 없고 한국어를 못하면 욕만 먹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녀는 도서관, 이주여성지원단체, 이주민지원단체를 돌아다니면서 한국어를 배웠고, 한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통역일을 시작하면서 현재는 정규직으로 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반면 급박한 생활의 필요에 따라 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경우 공장일이나 서비스업 외에는 결혼이주여성이 취직할 곳이 마땅치 않은데, 이러한 일자리는 저임금일 뿐 아니라 노동시간이 길다. 또한 이러한 일자리는 취업 기간이 늘어나도 임금이 증가하지 않으며,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직종에 취업한 이후에는 장시간 노동과 돌봄부담 때문에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노동시장에서의 상향 이동에 필요한 기술과 자격을 습득하기가 어렵다. 각종 결혼이주여성 지원 프로그램도 이들을 전업주부로 전제하고 평일 낮에 진행되고 있어 일하고 있는 여성은 참여하기 힘들다. 그러나 한국어만 살펴보다라도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하기 쉽고, 공장처럼 일하는 데 있어 한국어를 쓸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은 직종에서도 그 분야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이해하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한국어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앞으로 다른 일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한국어 공부를 드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은 한국어 등의 학습노동을 위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진입과 이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자격과 경력 형성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앞서 지적하였다.

여성이 한국 입국 후 별다른 학습노동 과정 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했다가 한국어 학습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고 이에 시간을 투여하게 되는 것은 자녀가 특히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이다. 자신의 한국어 발음이 선주민 한국인과 달라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봐 걱정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보다 고급의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데 자신이 이를 가르칠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다시 한국어 교실을 찾거나 집에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고 있다.

“원희 재우고 나서 공부 좀 해요.” [아, 어떤 공부해요?] “한글 공부해요.” [한국어요? 아, 책이 있군요. 말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왜 한국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혹시 한국어 좋아해요?] “저도 한국어 좋아해요. 사랑해요. 근데 원희 때문에. 엄마 외국 사람이라서 발음 좀 안 좋고 서투르니까 혹시 원희 2학년 3학년 한국어 좀 더 어려워요. 학교에서 더 어려워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제가 모르면 어떻게 해요.” … [혹시 한국어 공부를 더 잘해서 급수도 따고 이렇게 되면 직장도 한국어를 더 잘하기 때문에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무직이나 이런 것들?] “네 그렇게 생각. 그런데 제가 사무실 재미 없어.” [아, 그러면 몸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일이 좋아요?] “네. 음. 관광 통역.” (베트남, 최미희(가명), 28세, 11년 거주, 현재 공장노동)

또 다른 경우는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면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보일 때이다. 통·번역이나 이중언어 강사를 하는 여성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가이드, 의료 코디네이터 등의 직종을 접하게 되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러한 직종은 단순히 한국어를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영역의 전문적인 지식 역시 갖추어야 한다. 한국에 태어나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문화와 역사,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여성에게 이러한 부담은 때로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넘어 육체적 고통으로 나타나기까지 한다. 카자흐스탄에서 온 사비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은 후 어린이집 다문화강사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이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대에서

6개월 과정으로 제공한 다문화강사양성과정을 이수하였다. 그런데 그녀는 실습까지 다 마치지도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지 못 했는데, 한국어 쓰기 실력이 따라가지 못 하고 (그녀가 생각하기에) 강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내용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내용은 실상 한국사회에 관한 것이며, 그녀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다가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때 굉장히 힘들게 교육 받으신 것 같아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엄청 힘들었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 스트레스 왜 받았느냐 하면은 한국어 아직 수준이 4급 있어야 되는데 저는 3급이야. 어떤 말은 못 알아들어. 막 스트레스 받는 거야. 숙제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런데 활동 연습하면 잘해요. 근데 이제 뭐 써야 되잖아. 그거 문제였어요. … 역사도 있었어요. 저는 역사 싫어요. 역사, 아니 아이들 발달하는 거 어떻게 가르치는 거 재미있는데, 수업 진행하는 거 이런 거 재미있는데 역사 하니까 어이구 스트레스야. … 아주 가까운 곳으로 찾았어요. 제가 말했어요. 아기 아직도 어리니까 멀리 안가요. 가까운 데 찾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온 몸이 다 뼈가 뭐가 이렇게 바이러스 생겼어요. 스트레스 바이러스. [가서 검사하면 안 나오는데 온 몸이 아프신 거죠?] 못 걸어가요. … 내 생각에는 필요 있는 것만 알려주며 좋겠는데, 필요 없는 것까지 알려주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시간도 아깝고 스트레스도 받고. 근데 못 이겼어요, 그 스트레스를.” (카자흐스탄, 사비나(가명), 33세, 10년 거주, 현재 프리랜서 통번역사)

임금노동, 돌봄노동, 학습노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여성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슈퍼우먼’이 됨으로써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낸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은 특히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여성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들은 가구소득에 대한 기여도가 높고 가족의 경제생활을 주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집안에 밥 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은 선생님이 좀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아니면] “제가 집에 있는 시간에는 다 제가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있을 때에는 다 제가 해요. 제가 없을 때에는 준비해놓고 나가죠. 거의 제가 하죠. 남편은 잘 못 하죠. 내가 없을 때에는 잘하는 편이에요. 숙제 봐주는 것 뭐 잘해요, 시키는 대로. 제가 성격이 좀 남이 하는 것을 마음에 안 들어 해요. 눈에 안 차 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중국(한국계 중국인), 손한화(가명), 41세, 19년 거주, 현재 관광가이드)

면접참여자 3명은 학습노동에 있어 정부지원기관의 각종 프로그램이 시혜적 성격을 띠고 자신을 동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가져야 프로그램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것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전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 도움은 받았죠. 내가 생각하기보다 되게 웃긴 것은 진짜 이게, 쪽쪽쪽쪽 배웠는데 진짜 쪽쪽쪽쪽 다 써먹고 있어요. 그니까 어린이강사도 다문화강사도 사실 센터에 가서 정규직으로 배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선생님이 한 분 와가지고는 진짜 열심히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배우기는 했어요. 근데 누가 써먹을 줄 알았겠어요? 그니까 시간이 되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이 너 배워라, 나중 가면 언젠가는 쓰일 거다, 너 오십 되면 할 거 없으면 그거라도 할 수 있다고. 그니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또 강남구가 갑자기 일자리 생겨서, 강남구 일자리, 여성일자리센터인가 뭔가, 그게 형성이 돼가지고는, 그게 또 올라가가지고는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차명진 선생님, 혹시 어린이집, 어린이강사 할 수 있냐고. 어, 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자격이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강사 수료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딱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도 들어가서 한 6개월 넘게 거의 10개월 정도인가? 6개월 정도, 하여튼 기억이 안나. 암튼 6개월 정도는 했어요. 6개월 넘었어. ... 그리고는 코디네이터 자격, 수료증도 그거 해가지고는 세브란스병원 3개월 실습했고. 또 월급 받으면서 그리고는 또, 덕분에 이력서 쓸 때 쓸 것이 있잖아요. 강남구청 보건소에도 쉽게 들어간 거죠.” (중국(한국계 중국인), 차명진(가명), 35세, 14년 거주, 현재 놀이공원 통번역/의료 통역/식당 아르바이트)

또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통해 가족 밖 공적 영역을 접하고 경험이 확장되는 기회를 갖고, 다른 결혼이주여성들과 만나게 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넓혀가게 되는 것 역시 여성에게는 중요한 자원으로 남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주여성끼리 모여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선주민의 눈치 볼 필요 없이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면접참여자에게 앞으로의 노동 전망과 준비 상황에 대해 질문했을 때 가장 많은 대답은 ‘현재의 일자리에 만족하고 있고 경력 개발 계획은 없다’였다. 너무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터라 일상에 쫓겨 미래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응답도 상당수 있었다. 더 좋은 일자리로 옮겨가고 싶다고 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기보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 혹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라고 답변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통·번역사, 미용, 바리스타 등 현재 각종 지원기관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적합한 직종이라고 내세우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직종이 많았다. 즉,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지원기관에서 접한 일자리 외에는 한국사회에 어떠한 다른 일자리가 있고 어떻게 경력을 형성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만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동등한 경제적 주체로 한국사회에 통합되기를 바란다면 이들이 노동시장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고 긴 호흡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V. 결 론

1. 실태조사를 통해 본 결혼이주여성의 노동

결혼이주여성 노동실태조사 과정에서 연구기획단이 마주한 것은 면접참여자의 임금노동 실태를 넘어 한국사회의 구조적 조건으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에게 가해지는 제약이었다. 결혼이주여성의 위치성을 구성하는 이주, 기혼, 여성, 계급이라는 요소가 한국사회라는 공간을 만나면서 경제활동에 있어 이주여성은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노동환경은 전반적으로 열악하였다. 고소득의 자영업을 하는 결혼이주여성도 소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토요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어 능력을 자원으로 가진 경우에 직업 선택의 폭이 넓긴 하지만 한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고임금을 받는 안정적인 노동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한국사회 여성노동시장의 구조가 열악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과 맞닿아 있었다.

이주여성의 경제활동은 재생산/돌봄노동과 한국어/한국사회 학습노동이 결합하는 양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이 결합 속에서 이주여성은 노동시장에서 노동경력을 일관되게 관리하지 못하고, 노동시장 진출입을 반복하면서 파편화된 노동경험을 하고 있다. 자신과 주변 이주여성이 경험한 노동시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활동의 미래상 역시 그 상상력의 폭이 제한되어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이러한 조건에 처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혼이주여성의 임금노동은 경력단절, M자 곡선, 비정규화 등으로 나타나는 선주민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과 상당 부분 겹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이면에는 OECD 가입 국가 중 남성의 가사분담 시간이 최하위²²⁾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재생산/돌봄노동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한국사회의 현실이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은 재생산노동의 (전적인) 담지자로 상정되었던 만큼 이러한 노동을 수행하라는 압력을 더욱 강하게 받고 있다. 면접참여 자 중에는 남편이나 남편 가족이 집안 살림을 이유로 여성의 이직이나 퇴직을 요구하거나, 남편이 가정사를 돌보지 않거나 가사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었다. 출신국에서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당연시되는 문화를 체화한 결혼이주여성으로서는 자신이 경험한 적 이 없는 한국의 가사노동 방식을 따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한국어/한국사회 학습은 결혼이주여성의 노동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여성은 한국

22) 아시아투데이 2013.6.10. “한국 남성 가사분담·자원봉사 시간 OECD 꼴찌”

어 능력을 취업의 기본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더욱이 한국사회의 직장 문화에 적응하고 직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사회 학습이 필요했다. 한편 결혼이주여성은 재생산/돌봄의 전담자로 전제되기 때문에 한국인 자녀의 ‘어머니’로서 한국어/한국사회 학습이 책임으로 부과되기도 한다. 한국어/한국사회 학습은 여성이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임금시장에서 보다 나은 위치를 확보하는 한편 한국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성을 획득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양육노동을 책임진 존재이기 때문에 학습노동의 압력을 받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이주여성 역시 이를 모르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전후로 한국어 학습노동의 필요를 느끼고 하던 일을 접고서라도 학습노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결국 여성에게 전가된 재생산/돌봄 노동이 사회적으로 재구성되지 않는 한 한국사회의 구조 속에 있는 놓여 있는 이주여성의 조건 역시 변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이주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요인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는 크데, 이들이 진입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개별 이주여성은 넉넉하지 않은 경제적 형편 위에서 돌봄노동, 학습노동, 임금노동이 경합하는 삶을 보내느라 경력 개발 관리와 기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필요한 한국어 학습조차 참여와 단절의 순환을 반복한다.

2. 한국사회에 제기하는 문제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노동자성에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 주도 다문화 사업은 시혜적 성격이 짙었으며, 이로 인해 이주여성이 주체성과 적극성이 키워지기보다 수혜를 받는 ‘동원’ 대상으로 존재한 측면이 컸다. 다문화 사업의 내용 역시 적응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경제활동을 할 노동자로서의 이주여성에게 중점을 두지 못했다. 최근 이중언어 강점 개발 등의 취업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사업 역시 여전히 ‘가족’ 사업의 일환으로 간주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발한 이중언어를 자원으로 하는 직업조차 저임금의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다. 결혼이주여성의 노동자성에 주목할 때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이들의 역량 개발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능동적인 시민으로서 사회구성원이 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다. 면접에 참여한 이주여성 중에는 ‘집에서 나오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일차적 목표는 경제적 자립에 있지만, 이에 더해 노동시장 참여는 자신이 사회적 존재라는 점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는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회에서 소수자로서 수동적 주체였던 개별 이주여성이 능동성을 발휘하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이 본국과의 연결성을 갖는 존재라는 측면에 주목할 수 있는 경제활동

영역의 개발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은 타국으로 이주하였다고 해서 자신의 출신국과의 연결성을 단절하지 않는다. 한국사회의 관심이나 정책이 이들의 초국적 연결성을 포착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주여성은 한국에서 자국 출신 동료 이주민 커뮤니티를 시장으로 삼아 경제활동을 하기도 하고, 자신은 한국에 있지만 본국에 있는 지인이나 동료를 시장으로 삼아 물건을 팔기도 하며, 전문적인 무역업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주여성의 스케일을 확장하는 형태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 이주여성은 비즈니스 실무를 배우고 싶어 글로벌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밖에 없다는 말을 었다. 하다못해 한국어 강의로 열리지 않아서 그 여성은 항의를 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비즈니스, 무역 등은 남성적 영역이라는 전통적 사고, 그리고 서구(영어)와의 영역이라는 단편적 사고가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영역이 결혼이주여성과 별개인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은 비판해야 할 지점이다.

넷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결혼이주여성 지원기관의 역할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점검해야 한다. 면접참여자 가운데 구직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센터 등과 같은 유관 기관을 이용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자국 출신 이주민 커뮤니티가 오히려 정보 제공의 출처가 되고 있었다. 물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유관 기관의 프로그램이 이를 한국사회와 연결하는 통로가 되고 있음은 분명했다. 그러나 여성은 유관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주민 커뮤니티 안에서 유통하고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주여성은 선주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신들만의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선주민이 끊임없이 이주여성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지원기관이 경제활동을 하는 이주여성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각적인 방향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다섯째, 한국의 기업과 노동시장이 선호하는 노동능력과 결혼이주여성의 조건이 충돌하는 것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사업주와 결혼이주여성의 선호와 기대 간 간격이 너무 크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주여성이 유관 기관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존 연구(고혜원·김상호, 2010; 이용수 외, 2013)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인적자본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보육시설 마련, 남편의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변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은 반복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언은 아직까지 선언에 그칠 뿐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 선주민이 체화하고 있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경쟁 논리와는 다른 체제, 다른 생활양식에 익숙한 사람이다. 이들이 한국사회의 생활양식, 노동시장과 시스템을 따라가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거니와(이미 결혼이주여성이 하고 있지만) 개별 결혼이주여성이 고군분투할 필요도 있다. 개별적인 상황에서는 이주여성과 선주민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서로 적응해 나가는 중이다. 그럼에도 사회 전반적으로는 선

주민의 방식에 이주민이 적응하는 형태가 강요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것은 ‘이주여성에게 ‘적응’하라고 하는 한국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과연 그 사회를 바람직하다고 여길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이는 돌봄의 시장화, 복지의 개인책임화가 더욱 뿌리 깊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위치와 노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와 상통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성별직종분리가 강고하고 여성집중직업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이주여성의 임금노동 역시 그 범위가 제한되고 있는데, 특히 돌봄 영역으로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주여성이 현재 종사하는 직업은 대부분 여성집중직업이자 돌봄영역의 시장화로 인해 생겨난 직업이 많았다. 한국사회에서 돌봄의 시장화는 돌봄 책임의 개인화와 맞물려 있다. 허술한 사회안전망 때문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부양하는 것이 개별 가족의 책임이 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러한 돌봄노동을 외국 출신 여성에게 떠넘기기 위한 방편으로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돌봄뿐 아니라 은퇴 후 노후 역시 개인의 책임으로 한국사회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하여 이들이 속한 가족 전체가 불안정하다. 남편과의 나이 차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이 경제활동에서 은퇴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불안이 상시적으로 존재하고 노후 보장이 개인책임화된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 그 가족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결혼이주여성의 주요 출신국의 삶의 방식을 보면 한국보다 덜 경쟁적이고 노동에 덜 몰두하는 모습을 보인다. 국가 간 경제적 위계를 무기 삼아 한국사회를 보다 우월한 것으로 여기고 이 속도에 결혼이주여성이 맞추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역시 다른 방식으로 삶의 방식을 기획하고자 하는 사유를 시작해야 한다. 이 속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기획하고 자립을 모색할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참고 문헌 >

- 고혜원·김상호(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방안: 언어·문화 자원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경희·허영숙(2014),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를 중심으로 본 한국의 에스닉(ethnic) 노동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53(2), 75~110쪽.
- 김승권·김유경·조애저·김혜련·이혜경·설동훈·정기선·심인선(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법무부·여성부.
- 김영혜·손기영·박상희(2009),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김이선·김민정·한건수(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박미은·신희정·이미림(2012), “결혼이주여성의 취업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3(4), 213~244쪽.
- 설동훈·김운태·김현미·윤흥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양인숙·민무숙(2010),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IV):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이경은·장덕희·김도희(2010), “결혼이민여성의 직업활동과 역량강화에 관한 연구”, 『여성학논집』, 27(2), 113~153쪽.
- 이선형(2013), 『한국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과 정체성: 구술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용수·이태정·신현구·김명수(2013),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상태에 대한 분석 연구”, 『한국인구학』, 36(3), 21~44쪽.
- 임안나(2005), 『한국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의 가족관계와 초국가적 연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명선·이옥경(2009),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능력개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연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한국염·김엘리·유해미(2008), 『이주여성인권백서-적응과 폭력 사이에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Constable, Nicole(ed.) *Cross-Border Marriage: Gender and Mobility in
Transnational Asia*,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iper, Nicola and Mina Roces(2003b), "Introduction: Marriage and Migration in
an Age of Globalization", Piper, Nicola and Mina Roces(eds.) *Wife or
Worker? Asian Women and Migration*,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p.1~21.

토론문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결혼이주여성의 노동경험 분석

1. 연구의 의의

○ 결혼이주여성의 3중 노동

- 결혼이주여성의 노동경험을 임금노동, 돌봄노동, 학습노동으로 분류하여 명명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겪게 되는 삶과 노동의 어려움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잘 분류해서 보여주고 있음.
- 특히 학습노동이 한국어 학습만이 아니라 '이주'에서 겪게 되는 사회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 한국 사회 적응의 과정을 '노동'이라고 명명한 것이 결혼이주여성의 위치성을 더욱 잘 보여준다고 생각됨. 적응이 단순히 결혼이주여성이 겪어야 될 과정이 아니라 얼마나 목적적으로 해내야 되는 과업인지 잘 알 수 있었음.
- 그런데 이 세 가지 노동을 '경합'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듦.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이 세 가지 노동을 다해낼 것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경합'이 아니라 노동의 삼중부담, 3중고에 시달린다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은 아닌지.

○ 결혼이주여성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

- 결혼이주여성이 임금노동에 참여하는 의의를 잘 밝혀주고 있다고 생각됨. 결혼이주여성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한국사회에서 노동하는 구성원으로 인정받으며 능동적 시민으로 사회구성원이 되는 것을 촉진한다고 그 의의를 밝히고 있음.
- 이주의 목적이 '결혼'이지만 결혼이주여성이 가족관계에서 종속적 위치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동'을 통해 자립하는 것이 필수적임.
- 그런 측면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목표가 결혼이주여성을 단순히 가족관계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독립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노동자'로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구체적 정책과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됨.
- 그런데 '결혼'이주여성이라고 명명한 순간 독립적 개인이나 '노동자'이기보다 재생산/돌봄의 성역할을 강화하는 프레임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지 언

어의 문제를 생각하게 됨.

2. 결혼이주여성의 노동 권리를 위한 의견

- 결혼이주여성의 임금노동 실태에서 밝히고 있듯이 결혼이주여성들은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단순부품조립공장에서 2,30대 한국의 여성들이 일하지 않는 영역에서 일하고 있음.
 -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부당한 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어떻게 대처하며 행동하는지는 나타나지 않음. 또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교육을 받았는지도 알 수 없음.
 - 결혼이주여성의 대부분이 임금노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과 성희롱, 폭언, 폭행 등에 대비한 여성노동인권 교육을 받아야 할 것임. 여성노동인권교육은 젠더관점에서 노동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삶의 가치와 철학을 담아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교육과정이 있는지 점검 필요함.

-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차이를 어떻게 의미화 할 것인가?
 -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 일방적으로 '적응'하라는 것은 폭력이라고 생각됨.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에서의 경험은 한국 사회를 낯설게 바라보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음.
 - 같아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드러내고 차이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한국사회에 다시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 이것은 개별 결혼이주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좌담회 같은 것을 기획하여 한국 사회에 문제를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 결혼이주여성의 젠더화된 하향 편입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 본 연구에서 제안하듯이 결혼이주여성은 출신국에서의 노동이력과 상관없이 식당 등 지인들이 주로 종사하고 있는 직종에서 첫 노동 경험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미 성별화되고 이중구조화 되어 있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어떻게 하향평준화 하지 않고 자신들의 노동경력을 쌓아갈 수 있을지 솔직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매우 힘들.
 - 그러나 본 연구의 제안처럼 상상력조차 갖는 현실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다른 영역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토론문

박진경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결혼이주여성의 노동, 선택 아닌 필수

결혼이주여성 노동경험,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

여성가족부(2013)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제결혼 가구의 절반가까이가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0만원 미만이라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으로 하여금 노동시장 참여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응답자의 배우자 소득이 100만~200만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3.8%로 가장 많고, 이들은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63만원임을 감안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가구이거나 빈곤 가구에 속하는 어려운 형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답자 소득 평균 122만원을 합쳐 가구소득 평균이 28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가구소득 43.5%에 해당되어 결혼이주여성의 노동소득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조사에 응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이라면 한국 내 2014년6월 현재 128,000명인 전체 결혼이주여성의 현실보다는 다소 나은 조건의 환경이거나 정부나 단체의 지원 및 정보를 활용하는데 익숙해 비교적 노동의 기회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나올 것을 감안하면, 전체 결혼이주여성의 노동 현실은 이보다 훨씬 열악하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대다수의 결혼이주여성이 빈곤과 비인권적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방기하고 있는 ‘한국인’ 가족의 생계와 돌봄을 위해 국가나 직장, 심지어 가정에서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노동을 외롭게 이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대우는커녕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차별의 최전방에 방치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결혼이주여성의 존재감은 그가 속한 ‘한국인 가정’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으며, 대부분의 이들 가정은 일반 가정보다 더 가부장적이며 더 전통적인 아내와 며느리 역할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전사회가 나서 한목소리로 ‘한국적 사회통합’을 위해 ‘더’ 한국인화 되길 일방적으로 강요해왔다. 거기에 빈곤화까지 더해져 적응과 돌봄뿐만 아니라 ‘먹여 살리기’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다문화 가정’과 ‘결혼이민자’라는 우리사회 이중적 편견과 차별의 총체적 대우를 온 몸에 받으며 그들만의 ‘차별화된’ 강도 높은 노동에도 정당한 평가는커녕 관심조차 받지 못해왔음에 새삼 마음이 아프다.

선주민 여성 노동 현실과 같거나 더하거나

선주민 한국여성의 노동현실과 정도의 차이일 뿐 참 많이 닮았다.

민주노총 여성조합원의 경우 가구소득의 40~6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이 41.1%이고, 60~100%를 담당하는 경우도 40.7%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여성조합원들이 가족의 경제활동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더 이상 보조생계부양자로서의 여성 노동의 위치 지음이 현실과 맞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¹⁾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등 남성의 생계부양자로서의 기능을 위협하면서 생계를 위한 여성노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경제적 효용'이 지배적 가치인 신자유주의와 가부장제가 만나 '성역할'에 경제적 효용의 잣대를 들이대, 성별직종분리를 더욱 강화하였고 여성 산업예비군의 양성을 통해 2차 노동시장인 저임금과 하위직 업무에 여성을 받아들이고 있다. 즉, 여성은 비정규직 및 시간제 등 불안정 고용형태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임금 '짜구려'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다. 이렇듯 신자유주의 가치가 모든 가치를 압도하면서 여전히 강력한 가부장제와 협력적 관계로 고착화하면서 성평등이나 노동의 가치는 현실과 동떨어진 낭만적 가치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고용률 70%'에 천착한 정부의 잘못 꺾어진 정책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여성은 절박해진 생계와 맞물려 정부의 성과 채우기에 동원되면서, 여성노동의 가치는 더욱 평가 절하되고, 노동시장의 불평등한 성별분리구조와 그에 따른 성별격차를 강화하고 있다. 남성대비 여성임금이 68%에 불과한 성별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OECD, 2013), 2014년 3월 현재 여성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39.9%를 차지하고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중 28.5%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국가인권위, 2013)²⁾

이러한 성차별적 노동환경 하에서는 여성으로 하여금 출산 육아를 표면적 이유로 삼아 쉽게 노동단절을 선택하게 하고 이후 재입직시에는 더욱 하향된 직종 및 임금의 노동시장을 들락날락 거리면서 혹은 시간제를 전전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점에서 선주민인 일반여성과의 결혼이주여성은 비슷한 노동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1) 민주노총 금속노조 여성조합원 2,262명 조사결과로 한국여성민우회 외, 2014. 2052명 여성들의 일경험과 노동욕구를 통해서 본 대안 토론회 '여성노동정책은 없다' 권수정 민주노총여성위원장 토론문참조

2) 국가인권위원회(2013)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임금 실태조사

성평등과 노동가치 실현을 위한 결혼이주여성 노동정책이어야

여성노동이 추구하는 주된 목적은 '남녀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노동영역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고 완전한 경제적 주체가 되는 사람중심의 노동 가치 실현에 있다. 이를 위해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제반의 노력이 수십 년간 병행되어 왔음에도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여성경제활동 수준은 50%에서 꿈적도 하지 않고, 여성노동의 질이나 가치평가는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하향평준화 되었다. 그럼에도 성차별 없는 노동시장에 대한 요구는커녕 여성 노동의 주체성조차 온데 간 데 없이 국가와 시장의 필요에 따라 '고용'의 처분만을 바라는 피동적 도구로 전락하면서 여성의 노동 소외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한편 가임기 여성의 노동단절로 후진국 M자형 여성경제활동참가 유형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일·가정양립정책은 그 본연의 목적이 여성에게 부담해온 재생산영역을 국가와 남성이 공동분담하려는 의도였으나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 구축과 사회 분위기 속에 여성에게 집중되면서 실질적 도움은커녕 성별역할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그나마 비정규직이나 소규모 사업장에 몰려 있는 여성의 노동현실 속에 제대로 이용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적 효용에 의한 성별직종분리와 저임금 불안정 노동시장으로의 불가피한 선택이 일·가정양립을 위해 여성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오히려 과거보다 불평등구조를 발견하기 어렵게 하거나 발견 하더라도 여성 스스로의 자발적 선택에 대한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노동현실에서 선주민 여성과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경험은 점점 더 동질화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선주민 여성들이 겪는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의 이중부담에, 한국어 등 학습노동까지 부담해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삼중노동은 비록 다른 경험일지라도, 이 역시 이중부담을 겪는 선주민 여성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고통이고 공감이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상상해볼 수 있는 고통일 수 있다. 이는 학습노동을 포함하여 그 고통의 원인이 돌봄 등 재생산 노동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피해자인 '여성'이라는 동질성으로 공감과 연대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연대를 통해 우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여성의 임금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보상을 새롭게 요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평가절하를 위해 보조생계부양자로 규정해온 여성의 노동 소외를 거부하고, 정당한 대가로 가치 평가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노동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동의 주체성 회복에는 성평등 가치를 다시 전면 에 내세워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불평등한 노동시장, '적응' 아닌 '새판짜기'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한 정책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간추려보면 관주도의 다문화사업에 동원되어온 결혼이주여성을 이제는 가정 내 역할로만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성을 고려하여 그에 걸 맞는 지원과 정책이 우선적으로 마련 되어야할 것이다. 초국적 경제활동 영역이나 네트워크를 활용한 일자리 확대 등 결혼이주 여성의 노동 욕구에 다가가는 좋은 일자리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또한 이를 수행할 '가족' 중심의 지원기관의 활동영역 확대나 전문적인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요구된다.

다만 이러한 정책적 제안은 담당 부처나 서비스전달 기관의 역할에 국한된 제안으로 총체적 차별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회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새로운 모색과 성별화된 성차별적 노동시장 '새판짜기'에 주력해야할 것이다. 그녀들과 함께...

토론문

최재경

(중계사회복지관 결혼이민자고용센터 직업상담사)

결혼이주여성의 노동경험 분석

먼저 결혼이주여성의 노동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이러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결혼이주여성들만의 취업을 담당하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당 부분 공감이 되는 보고서였다. 그러나 실태조사서에 나온 여러 가지 자료들은 현장에서 몸소 체험한 것과는 다소 다른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고용센터는 그야말로 결혼이주여성들만이 찾아오는 곳이다. 간혹 결혼이주남성들이 오기도 한다. F6(결혼이민비자), F5(영주권자), 한국국적 취득 결혼이주여성들이 저희 센터의 주대상자들이다. 당연히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내담자이다. 한국어 능력은 이 노동 실태보고서에서 나왔듯이 결혼이주자들이 넘어야할 벽이다. 한국어 소통이 전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어 교육으로 유도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취업 의지가 매우 강하면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여도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학습노동과 돌봄노동, 임금노동이 경합한다고 하였는데 센터를 방문하는 내담자들은 임금노동이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내가 처음 결혼이민자고용센터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는 결혼이주자들이 모두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오지 않았을까 하는 오해를 하기도 했다. 출산을 앞두고 아기를 낳으면 바로 일을 시작할 테니 미리 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사람에서부터 심지어는 임신 2개월의 몸으로 배가 불러오기 전 몇 개월만 일을 하게 해 달라고 사정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저마다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함이 있어 보였다.

결혼이주여성은 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에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결혼이주여성은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정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0년부터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모두 8군데의 결혼이민자고용센터를 두었다. 결혼이민자고용센터는 서울에 세 군데, 경기도 부천시, 성남시, 평택시, 경남 진주, 전남 광주에 있다. 이 노동실태 조사보고서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결혼이주여성 지원기관의 역할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하였다. 103명의 면접 참여 이주여성들이 구직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센터 등과 같은 유관 기관을 이용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하였다.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님을 말씀드린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도 취업담당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이들이 일 년 동안 취업으로 연계할 대상은 3명 정도이고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한다. 또 이주여성인권센터의 지부가 있는 곳에 결혼이민자고용센터나 관할 고용센터 같은 취업 연계기관이 없어 면접대상자들이 접근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방문동거(F1)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 보고서에서는 방문동거의 목적이 결혼이민가정의 부부가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결혼이민여성이 혼자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 친정 부모나 4촌 이내 여성 가족을 초청하여 육아를 지원하게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나는 결혼이민여성의 가족들은 육아지원을 하기도 하고 취업 현장에서 일을 하기도 한다. 내가 일하던 초창기에는 방문동거 비자로 한국에 온 친정 부모나 자매들을 불법인지도 모르고 취업시킨 적이 있었다. 출입국관리법에는 자녀가 만5세에 이를 때까지 체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체류가 허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결혼이민가정에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부모를 초청하여 질병치료를 한다거나 한국 관광 등 효도를 해야 한다며 체류기간을 연장하기도 한다. 이주여성 가족들이 일을 하는 경우에 당연히 부작용도 생긴다. 필리핀 결혼이민자의 친정아버지는 일을 하다가 적발되어 화성의 외국인보호소에 있다가 추방된 사실도 있었다. 현실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친정 가족의 고용을 허가하는 방안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는 하지만 아직도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 때로는 친정 식구를 초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남편과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는 정부의 취업지원 정책이 장기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하여 결혼이주여성 인턴제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인턴제란 결혼이주여성을 채용하는 업체에 매달 5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에서 결혼이민자를 채용하는 업체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면서까지 결혼이민자의 취업을 돕고자 하는 이유는 그만큼 결혼이민자의 취업이 어렵다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 인턴제의 문제점은 결혼이민자를 채용한 업체가 이 제도를 악용하는데 있다. 임금을 지원받는 6개월이 지나면 가차 없이 해고를 하거나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한 번 이 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다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고용유지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의 제도대로 계속 운영을 한다면 결혼이주여성은 영원한 취약계층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

또 고용노동부에서는 관할 고용센터와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기관에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유형별로 분류하여 단계별로 집단상담과 취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 성공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실시하는 취업훈련 중 결혼이주여성들이 선호하는 것은 요양보호사, 한식조리사,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인데 처음에 의욕을 갖고 시작하였다가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취득하고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실패의 원인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원하는 대로 교육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또 한식조리사 자격증 과정은 필기시험에서 여러 번 떨어져 좌절하기도 한다. 바리스타 과정을 수료한 결혼이민자들은 이들을 채용하려는 업체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파트타임이라도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당장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중도에 포기하기도 한다. 취업성공패키지의 모든 과정을 마쳤더라도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이 제도의 문제점이다.

위에 결혼이주여성들이 취업을 하는데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나열을 하였는데 결혼이주여성 취업 최대의 걸림돌은 남편이라고 생각한다. 결혼이주여성이 일을 하는데 남편이 반대를 하면 할 수가 없고, 또 남편이 돈을 벌어 오라고 하면 일을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필요하다. 경제적 독립은 정신적인 독립의 한 요인이다.

나는 일 년에 몇 차례 결혼이주여성들과 집단 상담을 한다. 그 때 '나의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본다. 이상하게도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세계 여행'이라고 답을 한다. 그래서 세계 여행의 첫 번째 도착지가 대한민국이 아니냐고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결혼이주여성은 잠시 대한민국을 여행하다가 돌아갈 외국인 관광객이 아니다. 노동실태보고서의 마지막 대목에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그들의 삶을 한국사회의 경쟁 속도에 맞추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삶의 방식을 기획할 수 있는 사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제부터 머리를 맞대고 다른 식으로의 삶의 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단계다.

토론문

원옥금

(결혼이주여성·베트남 공동체 대표)

‘결혼이주여성의 노동 경험 분석’을 읽고

먼저 ‘결혼이주여성의 노동 경험 분석’을 보면서 우리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참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노력하며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다양한 실제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의 노동 경험에 대해 심층적인 인터뷰 방식의 조사를 통해 막연히 알고 있었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 점이 이번 조사 연구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금노동뿐 아니라 재생산/돌봄, 그리고 한국어와 한국 규범의 학습을 노동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파악한 것은 아주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주 여성은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에 더해 언어, 문화적 장벽이라는 장애물을 더 갖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학습 또한 이주여성에게 주어지는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구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 결혼이주여성은 동시에 이주노동자이기도 합니다. 저개발국에서 온 결혼이주여성들은 경제적 형편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선택하지만 현실은 한국 남성이 저소득층에 속해 결혼만으로는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의 가족과, 본국의 친정을 위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은 본국에서 여성도 사회적으로 노동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보고 자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입국해서 막상 일을 하려고 하면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임금노동에 참여하고자 할 때 가족들이 결혼이주여성에게 기대하는 재생산/돌봄 노동과의 갈등입니다. 대부분 적지 않은 나이의 한국 남성들과 그 가족은 결혼이주여성이 우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을 담당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결혼 초기에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서야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일을 통해 경제적 문제 해결과 사회참여를 하고 싶은데, 첫 시작부터 가족의 반대에 부딪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일을 하려고 하면 대부분 서비스업이나 공장에서 단순 생산직의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계 중국 결혼이주여성을 제외하고 대부분 한국어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 더 좋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각 지역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에서 한국어 교육과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에 관련한 교육을 받고 통역이나 상담, 이

중언어 강사, 다문화 강사 등으로 일할 수 있는데 결혼이주여성에게 이런 일자리가 늘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통번역 겸 상담 직은 최저임금 간신히 넘는 수준이고 이중 언어 강사는 1년 미만 계약직이고 다문화 강사는 계약이 없는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근무해야 하니 근무조건이 전문직에 맞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언어소통에 문제가 없는 한국계 중국 결혼이주 여성들도 본국에서의 직업과 경력이 단절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본국에서 무엇을 했든지 상관없이 한국에서 저임금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조사에서 나타나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경력이 쌓인다 해도 더 올라갈 곳이 없는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과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많은 한국 여성들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이주 여성의 경우 언어 문제, 한국 사회의 규범의 문제까지 더해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겪게 되는 차별, 인권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조사에서 일부 드러나기도 했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은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임금에서 차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는 경우도 드물고 임금을 체불당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그리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 또한 그동안 결혼이주여성으로서 한국에 살면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들과 비슷한 경험을 해왔습니다. 일을 하고 싶었지만 남편과 시부모님의 반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고 막상 일을 하려고 해도 작은 공장밖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곳에서 얼마간 일을 해보기도 했는데 열악한 환경과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현실이 싫어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이주여성긴급전화지원센터, 그리고 노동자 상담 센터에서 통번역 상담원으로 일했는데 봉사 성격이 농후하면서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쌓이는 일이지만 급여가 너무 낮아서 좋아하는 일이지만 지속적으로 종사하기 힘들어 결국 그만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정부와 사회가 결혼이주여성의 노동문제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정책은 결혼이주여성을 한국문화에 동화시켜 출산과 돌봄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결혼이주여성은 현실적으로 동시에 여성이주노동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노동력을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노동자성에 주목을 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이주 여성은 재생산/돌봄 노동, 학습노동 그리고 임금 노동이 경합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결혼이주여성에게 부담을 주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 단순노동에 그치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의 문제로 경력이 단절되고 또 학습노동과 임금노동이 경합하기도 합니다.

이미 한국사회에는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인적 자

원이기도 합니다. 젊은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사회가 결혼이주여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면 이주여성에도 좋고 한국 사회에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보다 안정적이고 좋은 직업이 제공되어야 하고 결혼이주 여성이 그런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사와 육아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한국 남편들의 의식 개선도 필요하고, 특히 아이 양육에 있어 친정의 도움을 받기 힘든 이주여성의 현실을 고려하여 이들이 안심하고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를 돌봐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고 조사연구를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사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문제들을 토대로 결혼이주 여성의 노동문제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조사가 적은 인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지만 대상자 선정에 있어 지역별, 출신국별, 직업별로 대표성을 갖도록 선정되어 심층 인터뷰를 통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사 연구가 일회성 조사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결혼이주여성의 실제 삶과 노동의 문제를 파악하여 좋은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